一卷 頭 言一

오늘을 이룩하고 來日을 支撑할 이나라의 棟梁인 青年学徒 卒業生 諸君은 앞으로도 被教育時代의 勤勉과 努力의 精神으로 加一層 文化의 發展과 民主々義의 暢達에 躊躇함이 없이 勇敢한 젊음을 그대로 發揮하여야 겠읍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常時 今日에 滿足치말고 來日을 期約하며 꾸준한 自我修養과 反省으로서 資質을 陶冶하여 文化의 役軍으로서 여러분들의 權威를 높이 評價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努力있기를 바라며 一年間이란 螢雪의 功이 헛되지 않기를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民議院事務總長)—

逸波學報

12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逸　波

12

遙波 十二輯 目次

◇表紙 — 徐在德

卷頭言 ———— (一)

卒業生諸君에게 告함 — 校監 徐商俊 —— (三)

모교를 떠나며 —— 會長 金允東 —— (五)

一年間의 回顧 —— 副會長 朴奉植 —— (七)

△社會와 法秩序 —— 學生主任 高在珌 —— (一一)

△國語와 國民生活 —— 庶務主任 金震熙 —— (一三)

△實地練習의 要領과 注意 教師 金鎭基 —— (一六)

首席者의 所感 —— 河大煥 —— (二一)

이렇게 한해를 —— 徐在德 —— (二四)

隨筆

無 —— 金淳喆 —— (二九)

雜念 —— 河大煥 —— (三四)

創作

고무총 —— 金鍾壽 —— (三九)

初겨울 —— 徐在德 —— (四三)

나의 가는 길은 어딜까? 崔炳哲 —— (四七)

六期生의 雜記帳 —— (四九) 母校의 沿革 —— (八八)

校職員名簿 —— (九〇)

卒業生名簿(同窓會員) —— (九一)

編輯後記 —— (九五)

卷頭言

校長 崔 斑 宇

여러분들은 今日로써 또하나의 自活의 길을 얻은셈입니다.

쌓트는 봄을 맞이하여 部分的이나마 完成된 여러분을 社會에 導出하게됨에 際하여 學報의 卷頭言을 쓰게됨을 기꺼히 生覺합니다.

現下의 韓國의 實情으로 보아 技術敎育에 立脚한 一人一技敎育의 國家的見地로서도 얼마나 重要하다는 贅言을 要치않는 바입니다.

더우기 여러분의 技術이란 記錄文化의 一面으로서 民主理念인 言論의 自由와 思想發表의 自由에 隨伴된 記錄保存의 必要性이 增大함에 따라 速記文化의 價値性이 認定되었고 이에 呼應한 눈부신 發展은 오늘의 여러분들을 또한 輩出하게 된것입니다.

斯界의 体驗者가 아니면 모르는 苦難속에서 强靭한 忍耐와 刻苦의 努力으로서 今日을 完成한 여러분들의 前途에 期待하는바 많은것입니다.

卒業生 諸君에게 告함…

校監 徐商俊

昨年四月에 諸君을 새로히 맞이하여 學業을 開始한지도 於焉間 一年이 되어서 꽃이 다시 피려는 이봄에 情들은 諸君과 作別을 하게되니 感懷가 깊읍니다.

우리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는 創設以來 諸君과 같은 俊才를 많이 養成하여서 우리社會에 奉仕케하고 있는것은 世人이 다 잘아는 事實이며 速記學術界에 있어서 唯一한 存在로 自他가 是認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光復이 日淺할 뿐만아니라 뜻하지 아니한 六·二五動乱으로 因하여 莫大한 損失을 招來하였음은 諸君도 熟知하는바이며 國家社會 全般에 亘하여 復興에 銳意努力하고는 있지마는 아직도 所期의 目的에 達하려면 前途遼遠한 感이 없지않습니다. 社會秩序도 整齊되지 못하였으며 産業經濟文化等 各分野는 諸君과같이 年富力强하고, 健全한 새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特히 速記文化는 初創期에 處해 있으니 만큼 諸君의 開拓精神과 不撓不屈의 勇氣가 絶對로 必要하다고 生覺합

니다.

諸君은 先輩들의 開拓士的 足蹟을 거울삼아 勇往邁進하여 速記文化의 向上과 發展의 擔當者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諸君은 이제 校門을 나서서 社會로 進出하려는 關頭에 섰읍니다. 人生世路는 반드시 平坦한것은 아닌가 싶읍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諸君은 奮發하며 健闘하시라 그리하여 最后의 榮光을 누리시기를.

——(議事局長)——

모교를 떠나며

회장 김 윤 동

촌음(寸陰)에 세월의 흐름을 느끼기 보다는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이 지나간후 비로소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것이 세월에 대한 상념(想念)이 되어온것 같습니다. 우리의 졸업도 염두(念頭)에도 두지않었던 촌음의 합(合)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기를 만들고 말었읍니다. 작년 삼월에 희망을 담뿍안고 찾어든 뜻이 대한속기 고등기술학교로서 좁은 문을 헤치고 우리들 칠십이명이 입학하였든 것입니다.

입학과 더불어 우리들 칠십이명은 풍릉한 운명이 합류(合流)된 가운데 기록문화계의 일익(一翼)으로서 일할수 있는 역량을 함양코저 습득의 경지에서 지난지 어언간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좋으나 궂으나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물러날 졸업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회선배의 보금자리를 물려 받고 육회의 전아로서 들어 왔은지 벌써 일개성상(一個星霜)이 되었읍니다 아타깝고 애석함을 금할수 없으나 우리들은 년륜의 명(命)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졸업함으로서만이 교체기(交替期)의 임무를 수행(遂行)하는 것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정든 보금자리를 물러납니다. 우리들 특유(特有)의 사상을 안고 물러납니다.

물러남에 앞서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은사님과 선배님에게 감사의 념(念)을 금치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속기화를 직접 담당해주신 세분 스승님의 돈후하고 열성있는 지도편달을 오늘을 이루게한 바탕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뜨거운 감사를 올리는데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시어 후진(後進)들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애끼지않으신 선배제형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소생이 학생회々장으로서의 중책을 수행(遂行)함에있어 실수 투생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대과(大過)없이 졸업을 맞이하게 됨은 오직 스승님들의 알뜰한 보살핌과 여러 학우들의 돈독한 격려와 협력의 결정(結晶)임을 밝혀둡니다.

꿈많은 이십대에 있어서 일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일파(逸波)학교에서만 얻을수 있는 유형무형의 고귀한 빛은 우리들의 생々한 교훈이되여 창々한 인생항로의 등대가 되어줄것을 의심치않습니다

끝으로 모교의 영원한 번영(繁榮)과 여러 은사님의 안녕(安寧)을 빌며 학우들의 앞날에 광휘(光輝)있는 삶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四二九一年 二月 二十三日

一年間의 回顧

副會長 朴 奉 植

一年間의 回顧

喜怒哀樂이 交錯하든 丁酉年의 感銘깊었던 한해도 於焉저물고 歲月如流水라더니 一個星霜은 헛된 또 한번의 生의 延長이였나 하고…… 速記學校 一年間의 生活을 回顧할때 感慨無量한바 禁할길없다

두렵지 못한 顏面으로 한敎室에서 "키케로"와 "T・i・r・O"가 어쨋으나 부터 始作된 一年이 果然 우리에게 어떤 收穫이 있었으며 어떠한 效果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自身에 反問하지 않을수 없다.

비록 짧다면 짧은 지난 一年을 通하여 青春은 무참히도 情熱에게 背信當했고 肉身은 健康을 排重하고 말았으리라 믿을 때 春風秋雨 不斷히 線(logogram)을 連結시키던 學校生活이란 焦燥와 緊張 그리고 忍耐와 努力을 거듭하면서 獲得한 그 價値 또한 至大함을 否認할수 없다.

한편 眞理의 殿堂이라고나 할까 生存競爭의 前哨地로 有名한 速記學校가 存在하는

以上. 避치못할 六期生의 [redacted] 歷代를 通하여 찾아볼 수 없는 實力 保持者라는 評을 받던 事實이 記憶에 遼々하여질 뿐이다.

그리고 春季遠足時는 所謂 "미쓰金" 이란 男의 簡單한 律動과 교마詩人 "미쓰리張" 이란 女의 "제스취" 로 光陰을 흥겨웁게 裝飾했든 追憶을 쌓으면서부터 六期生의 位置도 安定되기 始作된것 같았다

『배운대』의 登山은 生覺만해도 疲勞해지는것 같으면서도 "責하신 몸" 이라 할지라도 "이왕 버리신 몸" 이라 한마디 言及하지 않을수 없다. 山을 연거퍼 셋이나 넘고 道中에서. 지처 準備된 "류쿠사꾸" 의 "사과" 며 "菓子" 는 鄭先生任이「먹고 올라가지」의 動議가 滿場一致로 採決되었었고, 氣盡力盡 百餘次나 쉬어가며 간신히 目的地에 到着했을 때의 快感이란 — (좋수한데 무러보시고) ……

歸路時의 "소나비" 는 끝일줄을 모르고 싸늘한 가을 바람을 맞아가며 山을 뛰어넘든 그 모습이 이제와서 生覺하니 우습기도 하면서 一見 加一層의 追憶이 새로워진다.

더구나 送年會겸 學生親睦會時의 餘裕있는 時間을 通한 心身의 休息은 個々學友의 人生觀을 토로할 수 있는 機會였었고 우리에게는 단 한번의 意味깊重한 時間이 아니였든가 ………

그뿐아니라 速記術의 鍊磨와 人格陶冶에 精力을 다하며 体得한 가지가지의 教訓이

란 西洋의 哲人 Pascal이 "都是 自然과 人生에 飛躍이란 없다." 라고 喝破한바와 같이 어느 速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分野에 있어서도 꾸밈없는 努力의 結晶을 希求하여야 된다는 것일 것이다.

無限한 慾望의 權化라고 부를수 있는 人間! 그들이 올바르고 참다운 生涯를 누림에는 그 基礎體로서의 秩序가 要求되고 그에 依한 組織的인 緻密한 計劃이 漸進的으로 옮겨져야 妥當할것임은 再言을 要치않을 것이다. 무릇 事業에도 順序가 있으나 그를 飛躍하여서 正當할수 없음은 아무리 火急해도 千里길을 단번에 뛸수 없다. 삶이 이처럼 每事에는 始終이 있어 비로서 目的에 到達할수 있다는 것일것이다.

速記라고하면 于先 簡單하고 容易한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상인즉 피어린 勞苦의 蓄積으로서마나 所期의 目的을 達할수 있고 緻密한 計劃下의 組織的인 活動마니 人間生活의 올바른 걸임을 銘心하지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아무 努力과 忍耐의 代價없이 成功을 바란다는것이 決코 飛躍이니 이는 필경 悲運을 招來함이 當然함과같이 努力의 代價를 求하려는 者에겐 公平無私한 試鍊의 機會가 또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愚鈍한 頭腦로서 敢히 速記學校에 뜻을 두어 斗坊 地下室의 흙냄새를 맡아가며 肉体的生存과 精神的糧食을 希求하며 當然以上 잊을수 없는 마음의 눈물속에도 卒業이란 厳然한 事實이 곧 飛躍이라고 確信한다.

그러나 지난 1年을 回想하면서 부러는 起伏하던 波瀾曲折이 哀傷을 자아내게 하고 季節이 青

春이 反映되지 않은 서글픈 生活이 想起되어 興味는 커녕 貴치않을 程度다. 動機와 目的은 如何間에 速記와 因緣맺은 同志의 心情 그것은 저有名한 Aristoteles가 말한 '鄕愁는 故鄕을 떠난 사람만이 느낄수 있고 사랑은 사랑하여 본者만이 眞實로 느낄수 있고 眞味를 안다.'는 말과같이 쓰라린 速記生活이란 마치 入門修道生活과 다름바 없고 이는 速記를 한者만이 理解해줄수 있고 直接 体驗못한 사람인限 아무리 苦生하여 高官大爵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父母兄弟姉妹라도 없어 못살 戀人마저 그心情을 省察할수 없지 않을까……? 苦難과 荊棘의 길로 사나히답게 邁進하고 젊은 피가 勇氣로서 青春의 試鍊을 克服하는 1年 또한 虛送歲月 嘆息에 눈물짓고 서러워함이 없어야하리라. 卒業은 곧 出發이라 이제부터의 全体 順男의 方向은 알바 없으나 지난날의 理想이 자못 苦박의 아무것도 아니며서는 안될것이다. 不斷한 努力과 忍耐로서 勇敢하여야 할것이며 人生 道程에 있어서의 急動…… 人品修養의 한 段階로서 또한 廣漠한 社會에서 速記学校를 回想하며 加一層 힘찬 발거름을 옮겨야 하리라…… 卒業이란 感慨無量함뿐 單只 지난날을 回想하며 起伏하는 追憶의 "내광"을 혼들면 愛導와 激勵를 不惜하신 先生님들께 萬腔의 謝意를 올리고 倍前의 사랑을 비는 一方 大韓速記技術学校의 繁榮과 発展을 祈願하며 学友들의 보담 높고 아름다운 友情의 創造를 冀求하여 마지않으며 速記学校生活의 回顧錄을 되을가 한다.

社会와 法秩序

學生主任 河南 高在珌

「사람은 社會的 動物이다」라는 말과 같이 人類는 社會的인 生活을 함으로서 다른 動物과는 달리 살수 있는것이며 社會를 形成하여 살아야만 生을 完遂하고 또 生을 享樂할수 있는 것이다.

社會的生活 이라는 것은 單純히 多數의 사람이 까마커떼나 새떼처럼 모여서 사는것을 말하는것은 아닌것이고 多數의 사람이 모여서 一定한 秩序를 가지고 사는것인바 많은 사람이 一定한 秩序 밑에서 生活을 하려며는 各自가 自己個人의 主張만을 하며는 그社會는 大端히 紊亂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愉快하게 生活할 수 없게됨으로 모든 社會構成員이 잘 살려며는 各自는 하여야할 일을 하여야 할것이며 하여서는 아니될 일은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것이다.

위에서 말한 하여야할것 하여서는 아니 되는것을 社會的生活規範이라고 稱하는 것이다.

社會的生活規範中에는 道德規範 宗敎規範 藝術規範等々 많은 規範이 있고 이 規範이 遵守됨으로써 그、社會의、秩序가

維持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生活規範中에서 特히 國家가 國家運營上 必要한 最少限의 生活規範에 對하여 强制力을 賦與하여 그의 遵守를 强制하며 이러한 强制力을 가진 社會生活規範이 即 法律인것이다.

따라서 國家라는 社會의 構成員인 國民된 者가 法律을 遵守하여야 할것은 더말할 나위도 없는것이다.

人間이 社會生活을 完全히 하려면은 國家에서 强制하는 最少 不可缺의 社會生活規範을 遵守함은 勿論 其他의 社會生活規範도 이것을 遵守하여야 하는것이다.

文明된 社會일수록 法秩序는 잘 遵守되는 것이며 文化人일수록 遵法精神이 强하는 것이며 新生國家로서 思想的, 經濟的, 社會文化的面에 많은 隘路를 打開하여야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一層法秩序의 維持가 緊要之事인것이다.

—(法制調査局長)—

国語와 国民生活

庶務主任 金 震 熙

사람을 가리켜 萬物의 '靈長'이라고 한다 사람이 萬物의 靈長이 될수 있는 要件은 여러가지로 들수있을 것이나 그中에서 가장 으뜸가는 要件은 사람은 思考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이 가진 이 思考할수 있는 能力은 言語를 土台로 하여 成長하였으며 言語의發達은 사람의思考力의 明確性과 統一性을 얻게하였으며 또한 思考力의 繼續性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言語는 人類生活에 있어서 마치 空氣와도같이 不可缺한 基礎要素이며 人類의 最高의 文化遺産인 것이다 우리의國語도 또한 우리 國民生活에 있어서의 不可缺한 生活手段인 同時에 우리 國民이 代々로 繼承하는 最高의 文化遺産임을 想起할때에 우리는 母國語에對한 愛情과 關心이 더욱 갖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最高遺産인 國語도 平坦한 길만을 밟어서 우리에게 傳하여졌던 것은아니고 우리의 國語의 受難은 우리의 歷史를 通하여 우리는 잘 알고있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國語의 受難時代는 우리 國民生活을 塗炭에 빠뜨리는 時代였던

것이다

우리가 直接 經驗한 우리의 國語의 迫害相을 倭政 植民政策下에서 찾어 볼지라도 歷々히 알수 있는것이다

倭帝은 우리의 民族魂을 없애고 倭帝의 奴隷로 만들기 爲하여 저들의 所謂 皇民化政策의 가장 至毒한 手段인 우리 國語의 抹殺政策에 무시무시한 毒牙를 뻐쳤으며 우리의 國語建設運動을 窒息시켜 民族을 破滅의 구렁이로 몰아 넣을려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天佑神助로 倭帝의 敗戰은 우리의 잃을뻔 하였던 國語를 도로 찾는 한편 獨立民族으로서의 줄기찬 國語建設運動이 지금 이時間까지 繼續되고 또 앞으로 꾸준히 繼續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國語의 興亡은 곧 民族과 國家의 興亡에 直結되는 것이며 國語의 盛衰는 곧 民族의 盛衰에 影響한다는 事實을 歷史的 実証을 通하여 뼈 아프게 느꼈기때문에 우리는 어느 民族보다도 더욱 더 國語에 對한 愛着과 國語의 守護, 發展에對한 責任을 深刻하게 느끼는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現代文明은 오로지 우리 人類의 知識에 依하여 産出된 結晶体이며 이 知識의 母体는 言語이였다는 事實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測定의 「바로메타」 라고 일커를수 있는것이 國語라고 할수없음을

생각할때 現在 우리의 後進性을 克服하는데 우리의 國語를 世界의 文化語의 一員으로 水準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負課된 最高 最大의 急先務라고 아니할수 없다

나음으로 우리는 單一民族으로서 單一國語를 使用하며 生活手段으로 쓰고 있는 까닭에 우리國民의 思考方式이 共通되고 生活感情이 融合될수 있는 民族傳統的인 國語로서의 長点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國民生活을 보다더 참되게 착하게 아름답게 하기爲한 媒介役割을 하는 우리 國語와 우리는 恒常 그運命을 같이할 運命에 놓여있는 우리는 母國의 淨化運動을 繼續되어야 할것이다.

國語의 淨化는 國民生活의 淨化가 되는 所謂는 植民地殘滓의 냄새가 濃厚한 倭語의 一掃는 勿論이요 品位있고 明朗하고 生動하는 國語使用은 모든 犯罪와 不道德과 腐敗를 막는 源泉임을 생각할때 또 그위에 우리의 後代에 繼承시킬 高貴한 文化財임을 생각할때 우리 國民各自의 責任이 얼마나 重한가를 미히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國民生活을 文化化하고 淨化하고 潤澤化하기爲하여 우리 國語의 使命을 잘 認識할수 있을 것이며 한걸음더 나아가서 우리國語가 人類生活에 巨大한 貢獻을 이룩하기 爲하며 우리 國語族의 使命은 實로 무거운바 있다. 오직 우리 國語族의 無窮한 發展을 빌뿐이다.

実地練習의要領과其注意

教師 金鎭基

速記의 練習方法으로는 周知하는바와같이 他人이 朗讀해주는것을 速記하는 朗讀練習이있고

自己혼자 速記材料를 朗讀해가면서 그것을 速記하는 盲書練習이 있으며 그다음에 講演이나 演說을 直接速記하는 實地練習等의 方法이 있다. 그런데 朗讀練習이나 盲書練習은 主로 學習課程中에 많이 利用하는 練習方法이고 所定의 学習課程을 畢한 사람으로서 十分間에 二千六百音字以上의 速記能力을 갖게되며는 實際速記의 第一歩라고 할수있는 後者의 實地練習方法이 가장 効果的인 練習方法 이다.

一年間의 学習課程을 畢한것만으로는 어디에 가서 「나는 速記를 한다」고 自信있게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 速記学校를 卒業했다는 것은 速記学習課程을 그저 거친것에 지나지않는 것이며 速記를 完成한것은 아니다. 多幸히 卒業과 同時에 速記士로서 就職이된 사람이라도 二、三年間은 学校時節에 努力한 以上의 努力을

加하지 않고는 「나는 速記를 한다」 고하는 自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速記完成에의 길이란 그리 容易하지 않은것임을 銘心하여 卒業과 同時에 就職이된 사람이나 앞으로 速記로서 職業을 삼으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強靭한 忍耐와 努力으로 練習을 繼續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이에 過去一年間 速記를 배우기爲하여 온갖 精力과 時間을 바친 諸君의 그努苦가 헛되지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練習方法의 하나인 實地練習上에 있어서의 要領과 注意하여야 할 몇가지 点을 記述해 보련다

實地練習에는 周知의 事實로서 講演, 演說等을 實際會場에가서 直接 速記하는 方法과 집에서 「래디오」에依한 間接速記의 方法이있는데 여기서는 前者의 直接速記를 할境遇에 必要한 要領에對해서 記述하고저 한다.

實相「래디오」에依한 實地練習이란 講演者와 聽衆이 直接 面接한데서 速記하지 않는다는 것과 音声이 機械를 通해서 나온다는 事實이 다를뿐이므로 練習上의 差異는 없다고 할수 있으나 直接 會場에가서 速記하는 境遇와 같은 細々한 注意는 必要치않은 것이다

× × ×

會場에가서 實地練習을 하고저할 때에는 講演開始豫定時間보다 훨씬 일찌 會

場에가서 于先 速記하기에 適合한 位置을 選択하여야 된다. 即 演壇의 側面으로 左上方斜로부터 光線이 비처주는 位置가 第一좋으나 그當時의 事情에依하여 그러한 位置가 없을 때에는 될수있는대로 講演者와 近距離로서 上述한 光線을 받는데에 자리를 잡도록 注意할것이며 또 한가지는 會場의 窓門이 열려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들어 올것도 念頭에두고 注意하여야 할것이다.

以上과같이 要는 講演이 第一 잘 들리고 어둡지않고 바람이 불어서 用紙가 나르지않도록 하는 條件을 考慮해서 安着하면 된다. 자리를 잡고난 다음에는 何時라도 速記가 될수 있도록 用紙를 펴놓고 조용히 마음을 安靜하고 待期해야한다.

이와같이 萬般의 準備를 하지않고 있다가 갑자기 準備할려는 그런 부急한 氣分으로는 처음부터 좋은 速記가 되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講演者의 發言速度가 自己의 速記実力보다 좀 빠를 境遇에는 그것을 無理해서 全部 쓸려고만 하지말고 自己의 力量에 맞는 程度로 速記해야 할것이며 빠지는 部分이 있더라도 그대로 継續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自己力量에 미치지못하는것을 그저 全部 받어 쓸려고만 하면 結局 速記文字가 乱雑하게 되어 落書밖에 되지않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아무런 練習도 되지않으므로 未完成 段階에 있어서는 于先 쓸수 있는데까지 쓰자는 主義下에 練習을 쌓아 올려야한다. 그래가지고 차

차 回數가 거듭함에 따라 速度도 向上되고 갈의 움직임도 自然스러히 되어 드디어 如何한 講演도 速記해 낼수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實地練習을 二、三回해보고 速記는 안되는것이라고 悲觀하는 그러한 虛弱한 心情으로서는 도저히 成功을 바랄수는 없는것이다. 忍耐와 練習이란 速記向上에있어 무엇보다도 緊要한 條件인것이다. 다음에 速記한것은 반드시 反文 또는 反讀하여야만 한다. 設或 自己實力이 미치지못해서 띠엄 띠엄 速記를 했기때문에 反讀이나 反文이 困難한 境遇라도 自己가 速記한것은 반드시 反讀이나 反文하는 習慣이 絶对로 必要한것이다. 速記란 反文이나 反讀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啓發도생기고 새로운 認識도하게되어 発展하는 것이다.

그리고 実地練習을 함에있어서는 처음에 速記를 할적에나 나중에 反文할적에나 이것은 實際速記의 第一步이므로 自己가 이講演을 責任지고 速記하는것으로 생각함이 더욱 좋은것이다. 速記를 할적에「이것은 練習을 하는것이다」하는程度의 精神으로는 進步가 되지않는다.

以上 大体 說明한것을 念頭에두고 于先 實地練習을 할만한 場所를 찾아가 보아야한다. 처음에 現場에 가서 보면 의숙하지 못해서 躊躇 躊躇하다가 드디어 자리에도 앉지못하고 마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勇氣가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實地練習은 되지않을 것이니 如何튼 現場에가면 于先 자리를 골라서 定着하고 周圍를 보지않고 用紙를 册床위에 놓으면 되는것이다.

또 速記를 始作하면 附近사람들의 視線이 몰이거나 : 그中에는 밧싹 다아오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速記란 어떤것인가 하는것 조차 모르는 人物이므로 조금도 수집음이 없이 安心하고 速記해도 좋은 것이다.

다음에 때에따라서는 그會場의 册床이 없는 境遇가 있는데 이러한 境遇를 미리 生覺해가지고 두꺼운 册바침 같은것을 미리 準備해가지고 감이 좋을 것이다.

册床이 없는 境遇라도 主催者側에게 事由를 얘기하면 大槪는 快諾하고 册床準備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機會가 因緣이 되어 予想하지않은 收入도 있을수있고 나아가서는 職場도 求하게되는 幸運이 돌아 올수도 있을것이다.

× × ×

未完成段階에서 練習을 繼續하지 않으면 實力은 加速度로 退步된다. 自己의 素質을 疑心하기前에 自己의 勤勉과 誠實한 努力을 疑心하기 바란다.

首席者의 所感

河 大 煥

千秋에 交替 없는 歲月은 올해도 어김없이 萬物이 蘇生하며 종달새 비비거려 希望을 노래하는 새봄을 이 땅위에 가저왔읍니다. 더불어 우리가 一年間 정들였든 學校를 떠나게 됨에 우리들의 感懷 또한 形容키 어렵읍니다.

一年前 이速記學校에 入學하여 速記라는 未知의 技術을 習得 하고저 힘찬 한발을 내어디디었음이 바로 어제런듯 記憶속에 새로운데 어느덧 一年이란 歲月이 덧없이 흘러 우리들 모ー두는 좋거나 그르거나 間에 이 정든 學校를 離別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그間 여러 學友들과 더불어 지나온 一年이란 期間은 참으로 우리들의 忍耐力을 「테스트」하는 試鍊의 期間이었으며 한便으로는 하나의 目標를 向하여 우리들의 가진바 熱과 誠을 모두 바처 技術 硏磨에 精進함으로서 寸刻을 아껴오든 …… 이제까지의 우리들의 걸어온 그어느때 보다도 한層 값진 努力의 期間이었기도 합니다. 비록 一年이란 期

間이 짧은 期間이었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人生行路에 있어서도 더 重하고 값비싼 青春의 한토막이 이곳에서 잘리었음을 想到할 때에는 안타깝도록 貴한 一年이었읍니다 어떤 때에는 自信을 스스로 비웃어보든 懷疑의 瞬間이 있었는가하면 우리들 學友들 間에 서로 말하지않는 가운데에 맺어진 貴하고도 값은 友情에 한껏 흐뭇함을 느끼기도 했으며 或은 些少한 理解의 相反에서 瞬間이나마 学友를 미워해본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지가지 일들이 이제는 흘러간 過去之事가 되고 보니 다만 記憶속에나 아련히 남어있어 먼 來날까지 기리 잊혀지지 않을 한토막 追憶이 되고야 말았읍니다

지나간 一年間을 다같이 힘껏 努力하여 오늘 未熟하나마 速記라는 하나의 技術을 習得하고 나감에있어서 極히 微々한 差異로서 等數의 判定이 되고 또 微力한 제가 首席이라는 榮譽를 敢히 차지하여 이글을 씀에있어서 自身의 無力함을 認識하는 나머지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오늘의 榮光을 갖어오게한 보다큰 뒷받침이 되어 주었든것은 오로지 一年間 저희들을 애끼고 길러주신 여러 先生任과 先輩 여러분들의 꾸준하시고 熱意에 가득찬 指導와 鞭撻의 結果임을 생각할때 다시금 그恩惠에 感謝하며 이点에있어서 우리 大韓速記高

等技術学校는 우리 나라의 그어느 技術学校에도 못지않는 学校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나온 一年間의 習學態度를 말씀드리자면 一言으로 말해서 모든 先生任들의 가르치심에 그냥 그대로 하나여서 열까지 고지식하게 받아드려 이를 實践하기에 努力하였다는것 뿐입니다 이러한 習学態度는 적어도 이 速記라는 技術을 배우는데는 반드시 必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뒤에 올 后輩에게도 勸하기를 주저치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先輩들의 指導에는 이를 곧 実地에 活用하기에 努力하였읍니다

끝으로 저自身과 여러 学友들에게 한마디 提言하고 싶은것은 적은 榮誉에 自滿하지말고 反面에 한때의 적은 失敗에 落膽하지 말고 꾸준히 継續해서 努力하고 精進함으로서 우리들의 窮極의 目的은 期必코 達成될것으로 確信합니다 한때에 사나운 暴風雨는 바위를 스쳐지나가지만 오랜동안을 두고 두고 쉴새없이 떨어지는 적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적은 물방울과같이 꾸준한 忍耐心으로 每事에 臨하면 成功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것으로 믿어 疑心치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學校를 나서서 指向하는바 方向은 달리할지라도 그동안에 맺어진 우리들의 貴한 友情을 기리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学友 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빕니다

이렇게 한해를

서 재 덕

아직도 찬기가 덜가신 丁酉年 三月 스무나흣날, 아침밥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발거름을 돌린 곳이 逸波速記学校였다.

數많은 男女應試者들 틈에 끼어서 入試場으로 밀려들려갔다. 試驗場 처놓고는 좀처럼 찾아볼수 없는, 本校應試者가 아니고는 맛 볼수 없는 곳이였다 의히기 어려운 技術学校래서라도 答은 되겠으나 拾萬善良의 議事를 論하고 立法을 하는 座席에 앉아 본다는 것이 마음을 흐뭇하게 해서 試驗場門을 나설때는 설령 入格이 안되드라도 본전은 찾은것만 같은 感을 가졌었다

國語와 常識算試驗은 普通 高等學校를 正常的으로 卒業한 사람이라면 그리 힘이 드는 問題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나 理想이란 막연한 題材를 주고

論文을 作成하라는데는 가슴이 철렁하지 落은 学生은 别로 없었으리라 본다. 事務處從庭에 合格者発表를 보고 卒業生의 案内를 받아 손에 땀을 쥐고 副校長室을 나설때에는 어느程度 安堵感을 가졌었다. 이런 節次를 차례로 밟고 좁은 門을 비비며 完全히 速記学校에 情을맺어야만한 우리들은 四月十日(日) 入学의 栄光을 가졌다.

어느때나 잘웃고 잘怒하시는것 같으면서도 親族모양으로 慈悲心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擔任이시며 同時에 總角이신 孫先生님! 지루함이 느낄사이 없이 「유모어」를 섞어 그애띄신 낯으로 웃어가며 流暢한 音声으로 親近感을 부려 주시곤하는 鄭先生任! 그리고 그리고 새침하신 体貌에 묵직한 音声을 가지고 정말速記士타입의 "봄"을 보여주시는 先生님 라디오에 「海外토픽」時間以上으로 興味津々한 얘기를 골라 읽어주시든 金先生님, 이렇게 恩師先生任들은 神秘感에 넘쳐 焦燥해 앉아있는 우리들앞에 차례로 번갈아 나타나셔서 拾粍 貳拾粍만을 연발하시며 마음을 잡질으며 몇個月이 지나는 동안 速記맛이 채 몸에 배이기도 前에 한편에서는 憑態를 머금는 奇形象이 이擬지않은 室内에서도 싹트기 始作하였다.

學生會가 構成되고 얼굴을 서로 익氣울조음 空氣맑고 푸른 잎들이 부채질하며 틈틈을 도라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合奏하는 초여름 光陰을 찾아 하루를 즐겼고.

그동안 速記講義를 마치고 여름放學을 마지했다. 放學이라고는 하지만 머리와 손은 放學일수 없었다 이렇게 一個月을 보내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야만할 우리 學生들 中에는 한사람 두사람 이렇게 門을 나서기 始作했다.

拾餘名의 "크라스메이드"를 놓치고만 우리들은 入學當時와는 天壤之差로 勞力을 要하는 學期임을 알았다 每分 二百餘字의 平均實力을 갖추었든 "크라이마스"로 練習에 精力을 秋毫도 아끼지않았던 時期였다.

草木이 季節에 붙어나듯 우리의 實力은 向上一路에 있었든것도 學生들의 얼마나한 學習에 邁進했든가를 證明해주고 先生任들과 先輩任들의 아낌없는 教 그리고 訓 의 尺度일것이다.

初가을도 저무는 日曜日을 択해 그동안 衰弱해진 몸을 끌고 흙냄새 풍기며 메뚜기 잠자는듯 고요히 누른 이삭이 깔려 아침이슬이 반짝이는 들판을 한참 달리다가 牛耳洞에서 山을 타기 始作하여 白雲台를 登山했든것이다.

흘했든 땀이 말라버리곤 몇차례나 반복하는 동안 발끝이 上々峯에 닿았을때

우리들의 몸을 받쳐주는 바위 바로 눈앞엔 点々紅의 나풀거리는 단풍진 山岳 그리고 머리 안개속에 까무친·한길 그옆에 人家들 팔다리에 피곤을 잊을 수밖에 없는 瞬間이었다.

아늑한 곳을 골라 우리 一行은 고침에 찾든 点心을 풀어놓고 즐기는동안 기다렸든양 반갑지않은 먹구름이 지붕을 이루어 주었다 하나 둘 떠러저 땀을 씻쳐주든 비방울은 山을 다내려오도록 떠부어 정능 골짜구니를 빠져나왔을때는 물에 담구었다 꺼낸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하루의 登山 또한 잊지못할 "메모리"의 한토막이 될것이다.

이렇게 하루의 피곤을 풀고 계속 힘을 기우런 速記의 能力은 貳百六·七拾字를 突破하면서 同時에 反文에 精力을 기우려야만 했다 이때의 實力을 말하면 貳百六七拾字를 읽고쓰지만 平均實力은 即 完全反文할수 있는 能力은 貳百二·三拾字 程度였을것이다. 이렇게 練習에 餘念이 없는 동안 冬期放學을 맞는 마당에 副校長先生任을 爲始한 多數先生任들 合席下에 送年學生親睦會를 열고 和氣로운 家庭氣속에서 親睦을 돕고 보름間의 冬期放學을 지내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速記學의 最高峰 三百字를 突破해야할 時期는 이때였다 再三 勞力을 해야한다고 覺醒했든것도 이때였다. 速記란 概念조차도 未知에 있든 우리들은 이른바 이程度의 實力을 가졌다는것 무한.히 바가운일이였으나 不足을 스스로 느끼며 滿足을 爲해 모든 힘을 集注해도 뜻을 이루

지못하는 안타가운 心情! 速記学의 峻嚴한 고개가 이곳이였다 巨大한 希望을 품고 달려 또 달리는 우리速記学徒들이 가뿐 숨을 거듭 뿜으며 또한 발을 내노려할 刹那 目前엔 卒業狀이 손을 벌리라고 命令한다. 一年間의 学習으로 滿足을 期하지못하고 校門을 나서야만할 本人으로서 一層 速記学을 愛護하는 心情에서 또한 앞으로 速記学을 習得하고 后輩들의 立場을 爲해 한마디 하자고 하면 나는 速記가 學問일수 없다. 萬一 不得己 学問이어야할 무엇이 있다면 其파式에 따라 基本的인 体系로보아 한藝術的인 面을 內包하고있는 또한 神意를 包含한 哲学的인 学問이라 하고 싶다 萬一 이것이 지나친 個人의 偏見일진댄 其동안에 數많은 先輩들이

그러했고 우리 自身이 体驗한바 努力이였다면 거짓에 가까운 表現이라 하겠으며 苦盡甘來格에 合當지않은것이라면 너무 諷刺的인것 같아 이程度로 해둠이 上策일까 한다

丁酉年도 例年과 다름없이 夏節에는 비가 나리고 冬節에는 눈이 퍼붓는 때를 찾아 꽃이 피고 단풍드는 해였지만 一年間의 지나온 소감을 말하면 어느 머리를 先頭로 풀려놓을지가 問題일것이다.

放学은 勿論이요 空日도 없이 挑戰을 繼續하며 恩師先生님들 그리고 先輩諸兄들을 괴롭힌채 한마디의 感謝하다는 程度로 告別의 人事를 여줍고 門을 나섭니다.

<隨筆>

"無"

金 淳 喆

「톨스토이」가 그의 참회록(懺悔錄)에 서 生의 疑問에 對해서 對答한 端的인 解答을 다음과 같이 쓰고 人間靈智의 解答을 넣었다

『모든것은 虛되고 虛된것이다 이世上에 生을 받지않은者는 幸福이다 죽엄은 삶보다 勝한것이다 그러므로 生에서 脫却하지 않으면 안된다.

『육체의 生은 悪인것이오 虛僞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肉体의 生命을 絶滅시키는것은 善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希望해야 할것이다』— 쏘크라테스 —

『人生이란 存在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이름이다 即 그것은 悪인것이다 그러므로 生에서 無에의 転換이 人生의 唯一한 善인것이다』— 쇼펜·하우엘 —

『 이世上의 모든 愚도 賢도 富도 貧도 喜悅도 悲嘆도— 모—두 이것은 虛되고 虛된 일로서 無価値한것이다 人生은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뒤에 남는것이없다 이또한 어리석기 한량없는 일이아닌가 — 솔로몬 —

『苦惱와老衰와 주검의 되기어려움을
意識하면서 살어살수는 없다 — 비 몸을
生에서 生의 온갖 可能性에서 우리들은
脫却하지 않으면 안된다』 — 佛陀 —

× ×

옛날이나 지금이나 東西洋의 區別 없이
人間의 生에 對한 懷疑心 神의 存在에
對한 疑問을 품지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한 없으며 이에 對한 解答 역시 그
렇다 人間의 本質을 人型에 比較해서
太初에 造物主가 人間이 人型을 만들어
버리듯이 人間을 創造해 냈다고 하며
人間은 神에 對해서 無條件服從해야된다
그러나 人間이 神의 存在를 否認하고

보면 人間은 너무나 自由인것이다
이 自由가 또한 生에 對한 疑問를 낳
게한다 劍拳한 哲人들의 말을 들어보
면 모두가 人間의 生은 無— 이것을
말한다 惡이며 無인 生에서 善파 有의
境地는 주검이다
人間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주검을 爲해
서 태어난것 같기도 하다
아니 善파有인 주검을 爲해서 태어났고
삶이란 주검으로 向해서 一步一步 前進
하는 過程을 말한다
生의 虛無에서 逃脫하기 爲하여 스스로
生을 미어버리는 수단外에 人間은 信仰
을 自由로 許하고 있다

『信仰이란 이것을 獲得함과 同時에 自己가 自己를 滅落시키는 일이 없이 살어갈수가 있게되는 人生의 意義에 對한 知識인것이다 다시말하면 信仰은 生의 原動力인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信仰의 意義를 말했지만 이것 亦是 矛盾과 억지의 結果밖에 招來하지 못한다

× ×

人間의 苦悩煩惱 에서 人間은 또한 未遂性을 지닌것이다

人間에게 있어서의 生의 形態를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第一의 血路는 無知無識의 길이였다

人生은 悪이며 無意味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生을 營爲하는者를 말한다— 大部分이 女子 혹은 青年 혹은 愚鈍한 者로서 「쇼펜하웰」「솔로몬」「佛陀의 生에 對한 生의 虛無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即 自己를 해치려는 龍과 龍을 피할려고 매어달린 나무가지를 쏠고 있는 쥐를 보지못하고 단지 잎사키에 묻은 꿀만 핥고 있는 部類의 人間群—

第二의 血路는 決樂主義— 그것이다 모든것을 知覺하면서도 잠시동안 舌上에 있어서의 現在의 幸福을 享樂 하며 生을 營爲하는者— 이것은 人間 大多數가 取하고 있는 方法이다 「솔로몬」은 이 處身法을 다음과 같이 表白하고있다

『여기에 있어 나는 快樂을 讚美하노라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것 보다 좋은것이 하늘아래 없음으로서니라 사람이 勞役하여 얻은섰가운데에서 이것만은 그 하늘아래 神에게서 받은 生命이 붙어있는 동안 그몸을 離脫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너 가서 즐김읍게 너의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서라 하늘아래 네가 받은 이 너의 헛된 生命이 있는동안 너 그사랑하는 아내와 더부러 기쁘게 지내어라 너의 헛되고 헛된 生命이 있는 동안 이렇게할지니라 이것은 네가 舌上에 있어 받은몫으로 네가하늘아래서 일할수있는 勞苦에 依하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릇. 네손이 감당할수있는것은 힘을드려 이것을 하여라 하지만 너의 가야할 冥府에는 勞動도 思索도 知識도 知慧도 없는까닭이니라

이것은 所謂 實證哲學이라는 美名을 가지고 生活하는者들의 處身法이다

第三의 血路는 元氣와 精力으로서 당한다고 하는 處身이다 卽 이것은 주검의 幸

福이 삶의 그것보다 낫다는것 이 았소의
幸福이 있을수 없다는 至論으로 生을 拒否하고
自殺하는 行爲의 處身法이다
第四의 血路는 心覇 그것이다 이것은 生의 悪
虛無를 認知하면서도 勇氣가 없어 그대로
어물 어물 生을 끌고가는 處身이다
이것은 弱者의 길인것이다 보다 좋은 境地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自己의 힘으로 獲得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戰取하지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우리가 배울것이 없다고 해
야 할것이다

× ×

『톨스토이』의 生은 苦難의 生 그대로
이며 또한 그는 苦悩할줄 아는 幸運児
이기도 했다 生을 追求하는 煩惱의
生活에의 그의 労役이 聖스러운것일
것이다

象의 人生!

비열하고 추하고 悪하고 파란하고 悲壯하고 비
겁하고 용렬하고 잔인하고 無知한 人間의 生에
서 이들의 모든 要素에 처한 人間 生의
本質에 對한 회의(懷疑)를 품을줄 알고
苦悩할줄알고 번뇌이 그의 眞摯한 追求의 態
度에 共鳴共感할수 있고 우러러 볼수 있는
삶의 所有者라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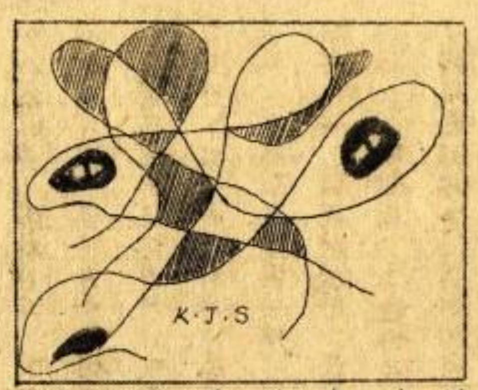
檀紀四九一年 三月九日

隨筆 "雜念"

河大煥

이미 해가 西山에 기웃거리는 午後六時頃이였다 無數한 사람들의무리가 首都서울서도 가장 繁華하고도 偏闊은길인 世宗路의 四方으로뚫린 넓다란 步道위에 몰려오고 몰라가고 또 몰려온다 그 無數한 人間群을 바라보며 나는 至今 乙支路行電車를 기다리고있다 이윽고 먼거며 두台의 東大門行이 지나간다음에사 乙支路行이왔다 大部分이 西大門에서 始發을하는車라 아직 별로 손님이 없었다. 서울에서도 가장 官庁이많고 따라서 男女「싸라리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여기서 부터 이電車는 제대로 好景氣를 이루는 것이다. 午后 나는 저기 가운데 창가에 있는 빈자라에 가앉었다 그리고는 여니때와마찬가지로 한팔을 창가에 기댄채 턱에 고이고 한발은 창아래에있는 電車의 벽에있는 突出部에 언저놓는다 그리고는 窓을通해서 내어다보이는 步道위의 無數한 人間群을 하나하나 凝視하면서 나대로의 自由로운 判定을 내린다 職業이며 現在의 그의位置 심지어는 그의 精神狀態에 까지를 멋대로 想像해본다 이러한 버릇은 乙支路大街에서부터 世宗路까지에의 거의 半時間을要하는 車間에서의 無聊한 時間을보내기爲한 하나의 方便이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一年餘를 지나는동안 이제는 完全히

하나의 無意識的으로 行케지는 一種 痼疾病的인 習慣이 되고말았다 이러한 病아닌病으로해서 때로는 失手를하는적이 없지않다 오늘도 그러한 例의하나였다 같은 電車向에서도 나와같은 痼疾病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나를보고 精神이 나간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善意的으로 解釋해준다면 課刻한 思索을하는 사람으로나 알아줄는지 모를일이다. 어쨌든 나는 나대로의 이 痼疾한 習慣을 이제는 도저히 고



칠길이 없이되었다 한정거장을지나 서울서도 有名한 明洞파 더부러 双璧을 이루는 鍾路和信앞에 이루렀다 于先 最新流行으로 일컬어지는 맘보쯔봉에 짤막한 半「코-트」를 걸쳐입고 머리에는 빵떡같은 모자가 뒤머리에 착사부러있으며「하히힐」을 신은 「모-던썰」이 한손에는 무슨 贈物箱子를 들고 깡충깡충 걸어간다 그는 아마도 流行파 사랑을爲해서 사는 팔자좋은 族屬으로 생각된다 손에든 箱子는 分明히 오늘저녁 만나기로 約束한 그의 愛人을爲해서 마련된「프레센트」이리라 그의 表情은 무척이나 幸福해뵈는 얼굴이다 다음은 바지통이 不過 八인치도 안될듯한 쯔봉에 몇두리의 양키통이 째진 웃도러에 샛빨간「노-타

이샤츠」를 마쳐입고 머리는 「올빽」으로 하며 뒤도 넘겨빗은 머리에서는 기름끼가 번드르하다. 마치 映畵스크린에서보든 「타ー잔」의 머리와도 같다 담배를 피어물고 한손은 주머니에 넣은채 무쳐들 바쁜 이 時間이언만 悠々히 걸어 자다 아마도 明洞을 主都合로 하여 아침부터 茶房파撞球場을 뒤저헤매며 終日 물만마시고사는 高級룸팬인 淡水貴族입에 들림이 없으리라 『乙支路入口입니다. 中間에게신분가운데로 따라들어가세오』 또한정거장이지났다 乙支路!! 여기는 比較的 健良하고 가난한 月給쟁이와 商人들이 많이 往來하는곳이다. 한쪽손에는 초라한 도시락주머니인 紙袋주머니를 들고 이미 流行에 뒤떨어진 오바를 입고 바쁜듯이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귀여운 子息들과 적은 收入으로서 살림을 메꾸어가기에 애쓰는 가여운 안해를 생각해서 발거름은 좀더 바빠지는 모양이다 이들에게는 收入만 좀 나아진다면 幸福은 좀더 쉽게 얻을수가있으련만。。 그렇나 이렇게 고루지 못한 世上을 이들모두는 한결같이 살아들간다 그中에는 한번 이세상에 태어남을 받은 以上 그저 살어야한다는 單純한 생각으로 살어가는 사람들도 있을게고 또는 이세상은 참말 즐겁고 希望이 넘치는 살만한곳이라고 사는 樂天派도 있을게고 또는 정말 죽지못해 살어간다는 非觀派도 있을것이며 그가운데

에는 이왕 좋으나 글거나間에 어차피 받어진 삶일진데는 좀더 보람있고 참되게 살리라는 眞正派도 있을것이다 何如間에 당장에 죽지않고 살고있는 以上은 적어도 그 사는目的이 꼭 있어야만 할것같다 다른사람은 말고라도 最少한 참되게 살리라는 眞正派 이들에게만이라도 그삶의 目的은分明히 明示되어 있어야만 할것같다 그러한 目的이 없이라면 무었때문에 이 아귀다틈하고 무서운 生存競爭을 敢行하면서까지 악착스럽게 살어야 하는나 말이다 먹고 입고 本能的인 性慾을 채우고하는 이것만이 우리人間이 산다는것의 全部는 아니리라 그렇다면 참다운 삶의 目的 다시말하면 人生의目的은 무엇이란 말인가 果然 이 大命題를 우리들은 먼저 알고 살어야하는가 無條件 막연하게 다만 살어감으로서 体得할것인가 이 大命題를 解決하지못하는곳에 우리젊은 知性人의 深刻한 苦悶이 있는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또한便으로 생각해볼때에는 지나간 數千年동안 우리의 人類가 地球上에 生存한 以來로 그 數많은 哲人과 學者들이 그들의 明哲한 頭뇌와 그들의 全生涯를 通하여서도 아직까지 이에대한 確實한 答解을 얻지못하고 돌아가지않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어야 옳겠는가 아무리 궁리를 한다하드래도 現在에 우리로서는 結局 이 크나큰 命題앞에 하나의 적은 結論밖에 얻을길이없다 即 우리도

于先 살어봄으로서 이 삶의 目的 人生의 目的을 깨닫도록 努力하여야겠다는것이다…… 이러한 질서없는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電車는 어느듯 乙支路三街를 지나 四街에 이르렀다 나는 무심코 電車를 내리고 말았다 내려보니 아직도 大街는 한정거장을 더 가야한다 비로서 나는 잘못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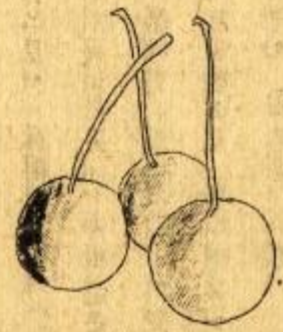
그렇다고 지금 막 떠나려는 車에 다시 뛰어오르기도 좀 어색한 일이다 나는 하는수없이 그냥 걸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몇걸음을 옮기지않어서 마침 찾으려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고보니 電車를 잘못내렸다는 失手가 오히려 多幸한 일로 되어버렸다

나는 그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헛웃음을 웃지않을수가 없었다

이래서 세상은 어떤때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기도하다



◇創作◇

고 무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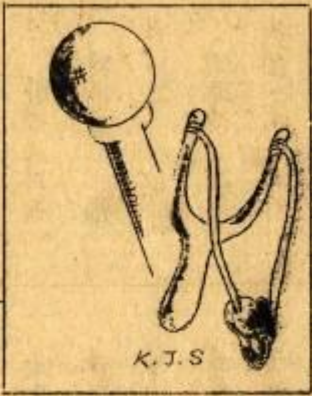
金鍾壽

눈이 목폭내린 밤이다 門燈이 환하게 빛여주는 萬壽네집앞 돌층계아래에는 오늘도 여ㅡ때와같이 이웃동리애들은 옹기종기 몰려서서 참새새끼들 모양 재잘거리고 있었다 그날밤은 유난히 둥근달이 싸늘한 흰빛으로 지붕위 기왓장을 비춰주고 있었고 드문드문 개발자욱만 어지럽게 널려있는 눈위는 반짝거리는 하늘의 無數한 뭇별들의 빛과같이 銀가루를 뿌린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틈바구니에서 턱이 뾰족한 놈이 큰소리로 호들갑스럽게 내뱉는다

「애들아! 萬壽는 참 존 대장이다」하면서 다른아이들의 同議도 얻을 必要도 없다는듯이 萬壽의 얼굴 表情을 흘겨본다 몇秒뒤 萬壽의 큼지막한 눈 두터운 입술이 실룩하드니만 그 퉁퉁한 찌그러진 얼굴판을 들고 벙긋웃는것이다 이웃음은 흔히 못난이의 웃음 오입쟁이의 웃음과 견줄만한것이였다 곧 그는 그보답으로 바지호주머니에서 흠칫흠칫 "쪼그렁" 부스러기를 끄집어내면서 自己를 칭찬한 놈들이 내민 작은 손바위에 털어놓는것이다 이 꾸락서니를 몇발자욱

뒷발치에서 눈이 멍
그렇게 어딘지 영악
스러운 생김새가 보
이는 英植이는 잘
투라기보다는 의아스
럽다는 表情을 짓고



말끄럼이 살펴보고만 있었다 實實나名譽
에 反하며 卑屈한 아침이라는 두名詞와
結果에있어서 行하여진 야릇한 그무엇이
나어린 英植이의 머리끝을 뚜다리고 지
나갔든 때문인지도 모른다

時計바늘이 조금 돌아간 후의 일이다
그날 역시 전날파같이 丸南파 부귀의
가정을 가진 萬壽란 놈을 대장으로 하
고 「올려잡기」 놀이를 시작한것이다

萬壽놈을 비롯해 英植이와 아침이가
刑事로 고무총 한개씩을 받어가지고
일을착수했다 털모자를 푹 눌러썼고
호주머니엔 바둑돌알을 불룩하게 처
넣고 허리춤에 친 두손을 지으며
거만스럽게 호령하는 품이 흡사 산
술난 산되지와 같았다 도둑으로 지명된
몇몇아이들은 제각기 뿔뿔이 흰눈을 밟으
며 어둠을 뚫고 어데론지 숨어버린지 얼
마지난 뒤였을께다 도둑놈 하나도 못잡아
화가치민 萬壽는 투덜거리면서 고무총을
마구 들며 함부로 눈덮인 숲속에다 쏘아
대는것이다 그개 마루터 街路燈을 지날
무렵이였다 자기의 심술난 얼굴을 동
무에게 보이기 싫었음인지 英植이에게

「야, 엄마 너 刑事시켜주었으니깐 저
電燈알을 쏴봐! 이 새끼야!」 자못
꼿머리를 올려가면서 명령을 내리는것이었
다
英植이는 아무말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
고 발아래 전등불빛에 반사된 눈만을
내려다 보고 서 있었다. 萬壽는 답답하
다는듯이 주먹을 불끈쥐고 「대장말 안들
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안불일테야 이병신아!」 옆에 나란 불
어서 있던 아첨쟁이는 좋아라하고 萬壽
의 일에 눈웃음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萬壽의 노려봄이 무서웠든지 英植이는
또다시 눈을 내리깔고 서서 떠듬떠듬

良顔에 가까운 소리로 「우리아버지 이
고개넘어오실땐 감감하믄 어떻게 해?」
강요함이 부당하다고 거절하는 빛을 보
였다 「뭣이 어때! 우리아버진 불킨
自動車라고 오니깐 문제없어」 말이끝나기、
가 무섭게 英植이는 머리를 萬壽의 주
먹으로 얻어맞어 아프다는것을 感覺하였
다 英植이는 피할 생각도 않고 손이
머리에 올랐다 저번 봄 昌慶苑의 벚구
경갔을때에 역시 萬壽의 명령으로 돌을
던저 원숭이의 얼굴을 깨트려서 동물원
파수 아저씨와 · 아버지에게 간단히 야단
맞은 일들을 모두 萬壽에게 말했다
英植이는 절대로 그런나쁜일은 다시 안
하겠다는 말이 었을께다 이 말을 듣고

나 萬壽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병신 바보같은 자식아 / 그래 그때는 그때구 지금은 지금야 / 너같은 자식하고 다신 안놀래야 / 가 / 」 더럽다는 듯이 침을 탁 뱉고나서

달빛이 가득찬 밤하늘에 그림자같이 서있는 가로등을 향해 萬壽는 가죽에 돌을넣고 그것을 힘껏 잡아댕겼다 그고무줄은 처음에 몇갑절 늘어났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순간 英植이는 萬壽와 아첨이의 不規則한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을뿐……

눈앞에 번개불이 지나가고 캄캄절벽이였다 그들이 재잘이며 고개마루를 내려 가는것만이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고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불빛은 확실히 없었다 英植이는 무의식적으로 눈위로 시선이 끌렸다 달빛에 유리조각은 반사되며 야릇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눈바람은 싸늘한 달빛과 함께 殘전을 스쳐 멀리 몰려가고 있었다

×創作× 初겨울

徐在德

어젠듯, 흘리든 땀방울이 채마르기도 前에 나의 目前에 性急한 落葉도 져간 初겨울이었다 휘 휘 하고 부러닥치는 바람소리는 窓門을 구르는 落葉소리와는 달랐다 溪谷 深山에 굶주린 猛獸의 悲鳴과도 같이 울려주는 뭉치소리는 어두움이 숨여드는 初겨울 한층더 쓸쓸하게 한다 非但 이것뿐이 아니지만 우수수한 소리와 함께 귀전을 울리는 궁지노리는 나에게 쓸쓸하다 이니 서글픈 生覺을 갖느냐? 라고 묻는것과도 恰似하다

외아들을 數千里 他鄕에 버려두고 세실백이 딸년을 앞에놓고 어루는 홀어마니 情心도 그러려니 새살림을 마련한지 數이못되 팔자에 없는 銃칼을 둘러 期約없이 떠나보낸 내마음 깊어가는 밤과함께 먹구름같이 답답해만 간다 지난 가을 어느날 부끄러운 마음을 억지로 가누면서 못베기는채 끌려나와 밝게 단풍진 東山숲. 노을짓어 황홀한 山마루를 거닐며 秘密아닌 秘密 얘기를 주고받든 머지않은 追憶!

그러나 오늘다시 그 時節의 즐거움을 憧憬할 겨를도 없이 無情을 지나쳐 沒人情하게 나만 기다리는것은 험상궂은

오바메기와 헐벙거지、그리고 탐탁지않은 이부자리 젊어가는初겨울밤을 한없이 쓸々하다、

女學校를 나오든해 어느날 亭子밑 우물뚝에서 배추를 헹구고 있을때였다

順玉이／잘있어서 · 예삐짓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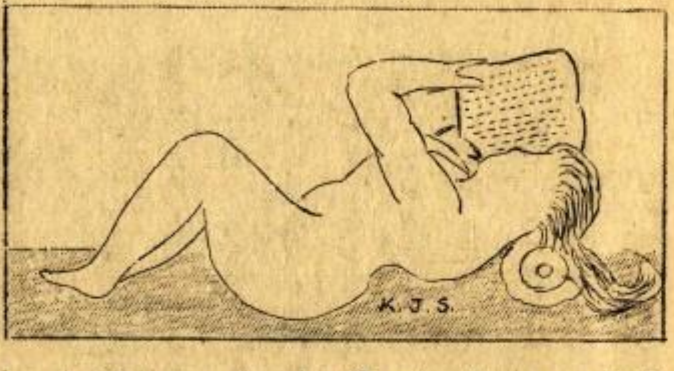
無意識的으로 씻든 배추를 움켜든채 휘끗 도라다 보았다 서울서 學校다니는 鍾和라는 것을 알자 그대로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수기채 지금 오·오 시는길이예요 응

잘있었어 다들 안녕하시구 하고는 수줍어 하는 貌樣을 知覺하자 저편에 놀라와요 응 하며 집모퉁이로 사라저 버린다 국민학교 大年동안을 동무마냥 시시러거리든 그와 나였지만 오늘 따라 새삼스레 그이와 얼굴을 맞대나는게 숙스러운 生覺에서 였지만 한번 微笑라도 혹시 싫어하는 表情으로 보여지진은 않일가 이렇도록 속으로 혼자 마음을 볶든 그時節／

그후로는 웃을수도 있고 언제오셨세요? 라고 말을 건네일수 있었다 흐르는 歲月은 우리들 사이를 遺憾없이 解決켜주었다

이것이 나와 그사이에 맺어준 인연이였다 토막이나마 이렇세하도 過去事를 回想하는것만이 둘도없는 나의 벗이다

싸느라생식은 앙금에 몸을 눕하고 가



물거리는 촛불에
비추어 軍郵。。
×× 部隊라고
쓴 封와를 찟는다
머리에는。나의
順玉氏라고 썼다
부슬비가 촉호기
내리든 지난봄
当身의 눈물어린
和色으로 한어께
에 태극기를 멀.
메이고 떠나가는
몸을 傳送하든 그 모습 내어이 있겠소
만 國家의 地上命令이 아니냐 聖誕節을
몇일앞든 오늘저녁도 聖堂에 鐘소리 놀

릴 무렵 独守空房에 한없이 쓸々해하는
서글품에 눈물짓는 当身의 애초로운 빛
갈 그모습 어제밤 꿈속에 보이드군요
혼자누운 順玉氏 모습이 /
男児貳拾未平國 이난後 世怨稱大將夫 라구
오 南北統一成事되는날 白頭山에 大極旗
날리는 날이 当身의 가슴에 꽃피는날
이요 마음놓고 男君이라 불러 위처 足
하겠지 너무나도 哀腸的인 몇줄을 내
리 읽고는 片紙를 든채 얼굴을 무더
버린다 서자 積雪이 쳤다는 前線高地
에서도 当身의 苦痛을 이룬치 더전혀
할 이몸을 염려하는 그이는 /
못견디게 금틀거리는 가슴을 억압한다
어느때가 되었는지 – 사랑군들의 발자국

소리와 기침소리가 電氣줄을 울리는 바람 소리에 마구쉬여 들여온다

불을 끄고 바로 누어 잠을 請한다

그러나 쉽사리 꿈속에 잠겨지지도 않는다

떠러진 落葉은 或者를 만나 태워지는 瞬間 구수하다 구수해 그리고 나면 흔적 조차 볼수없는 存在

그러나 誰剝아닌 誰剝告한 ?身 낫설은 어느 눈,쌓인 풀짜기 붉은피를 내뿜무며 쓰러지는 날은 이름모를 새들의 양식이되며 구수하다 구수해 그리고 나면 역시 찾어볼수없는 존재 落葉만도 못한 身勢?, 왜?, 人間이 아닌. 짐승의 입에서 구수하다 할 존재이기때문에 兩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어느듯 베게를 적신다 희멍청 비추는 보름달도 기울어 窓가에 어른대든 배나무그림자도 사라져 간다. 지루한 겨울밤은!

끝

= 創作 =

나의 가는 길은 어딜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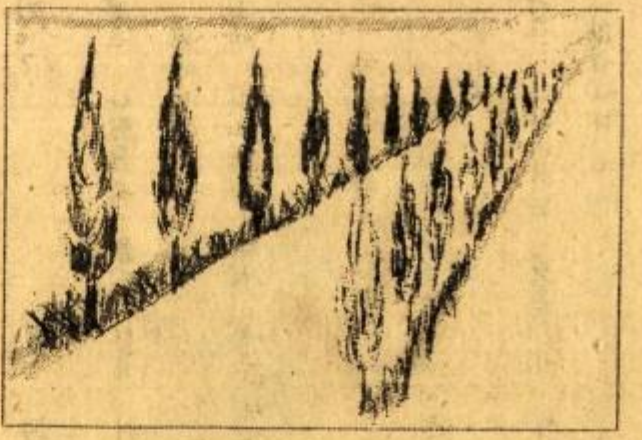
崔炳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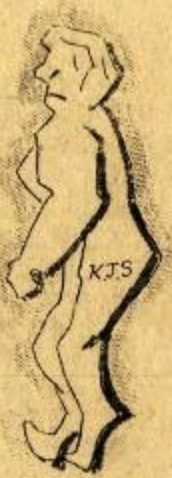
이 山上에는 길도 많기도 많읍니다
空中에는 飛行機길이 있읍니다
山에는 山길이 있읍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어딜까?
江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위에 발
자취를 남깁니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려나?
길을 거니는 사람은 땅을 밟읍니다
들에서 나물캐는 아가씨는 물을 밟읍니다
義있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위하여 갈날
을 밟읍니다
東山에 떠오르는 해는 붉은 노을 밟읍니
다
나는 무엇을 밟고 갈려나……
봄 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
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이 세상에 둘밖
에 없읍니다
하나는 人生行路의 勝利者가 되는길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죽엄의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人生行路에 勝利者가 되지못

한다면 주님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을 누가 내였읍니까?
아! 이 세상에 父母任이 아니고는
나의길을 내일수 없읍니다
그러면 나의 길을 父母任이 내셨다면
주님의 길은 뉘 내였을까요.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설 문>

本籍

住所

連絡處

檀紀　　年　　月　　日生

<設 問>

1. 速記를 배우면서 느낀点
2. 中高校時節의 抱負와 現在는
3. 當身이 擇할 女性의 타입은
4. 後輩에게 하고싶은 말은
5. 卒業後의 構想은

學生 "무로 될"

沈章輔

本 籍 京畿道 楊城郡 半月面 本德里
現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区 花洞五十番地
連絡處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二街 六十番地
和成社 電話③三九四七

<설 문>

1. 뭐로 없소이다
2. 이제아마 철이 나나봅니다 첫된 抱負
보다도 現實에 適合하게!
3. 肉体美는 普通 어여쁜 꽃에는 가시가
있다 마음은 친해야지 나를 아는 사람
4. 그대들은 부디 努力해서 成功하시기를
5. 글세 되는 대로 사러 보렵니다
工夫는 勿論 더해야겠고,

<푸 로 필>

學番이 一番이오, 白雲台 登山에도 一等… 그리고 무엇( )도 一等 速記도 끝에서 一等이 아니냐고 농담을 좋아하는 君! 忠臣이 될낭가요… 역적이 될낭가요… 時節이 하 수상하다니 될동말동 하다고 걸상을 부셔 알맞게 달은 난로에 들러 앉아 우숨 꽃을 피여주니 好人 이라면 서운이나 면할는지 經濟한 마음씨 그리고 새침한 体育区 男性的인 맛이 좋십니다

權竜太 (權影)

本 籍 慶南金海郡 長有面 大淸里
現住所 서울特別市永登浦区 黑石洞二九五의 三四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〇年 二月十二日生

<設 問>

1. 地上最大의 難事라고……
2. 글세아직이야 멀리고…
3. 女子다운 女性
4. 제발 基本文字 程度알고 進學할事
5. 速記無用論의 最高 先鋒者가 되려함

<푸 로 필>

千花 龍太君을 對하면 믿음직 스럽다 學生會의 總務며 편집委員으로 活躍이 多大하드니 中途에서 辭表. 듣자니 文壇界에 活躍이 多大하다고. 未
훌륭한 文人이 되시를 祈願하며 —

誠 永 一

本籍 江原道 春川市 耕化洞二〇一番地
住所 서울特別市東大门区 回基洞六四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 四二八九年 九月二六日生

<設 问>

1. 집이 먹을듯한 무서움
2. 머 별로… 오늘만 생각하고 살으니까?
3. 條件 No 1 키가 本人보다 五cm는 커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울것 예컨, No 2 얼굴이나 몸맵씨 까타 모두 아름답고 曲線美가 날씬
4. 번변치 못한 사람이라 할말은 없고 운세를 놀을쳐지… 하! 참
5. 政府에 役員 뭐가 한번 되겠다 발씨말라!

<푸로필>

예쁜장한 얼굴에 바쳐 반짝이는 두눈 잘미한 귀에 가볍게 움지이는 動作 모두가 젊은 마음을 表現해주오 政府에 投身하겠다구요 付託합니다. 複雜한 社会를 말아주시기를 집아먹을듯한 무서움이시라니 速記에 처해서는 무러 보기도 싫군요

李 爽 錫

本籍 京畿道 加平郡 外西面 大成里 六二七番地
住所 서울特別市 東大門区 祭基洞 九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一年 六月 十五日生

〈設 問〉

1. 살수록 白頭山
2. 長官하나 떼여 먹을듯 했지만 現在
셍파보고 이모양
3. "Y." 字의 매력형
4. 그저 쓰십쇼 파뿌리가 되도록
5. 마마 합니다 ? ? ? ....

〈푸 로 필〉

"쌍백선" 자에 "얼굴용" 자를 갖인 이름 이다

그것…… 아주 그럴듯하다

즉 쌍백을 가진 얼굴이냐 ?

얼굴이 쌍백이냐 ?

그렇지 그게 바로 부자집 아들어라

그말이였다 그렇지 않……

金佼漢

本籍 서울特別市 鍾路区 勸農洞 一○六番地
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区 益善洞 一四一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 四二七一年 七月 十二日生

〈設 問〉

1. 나의 머리가 아주 나쁘다 는것을…
2. 과거에는 기사 였으나 지금은 女子로 태여났으면 하는… 그러나 !!
3. 모든 여자는 요부
4. 速記에 많은 後輩가 없기를 바란다
5. 黃天路 直行
上파여히 相反無窮

〈푸 로 필〉

예쁘장한 둥근 얼굴에 수수무럭한 맵씨 萬一 女子라면 男子들이나 弄落하겠다는 君. 그렇지 않어도 班員을 弄落케 미움의 대상이 되었었지 「××代가 팡나루에서 방구뀌면」부터 始作되는 當身의 낭독法에 原因이 있지
純眞한 男性이니 한번은 사귀어 볼만한 사람 이라고
그러나 結婚을 않겠다는 心思는 알실이 杳然 深山幽谷에 僧이 될런가? 글쎄

韓 弘 仁

本 籍 全羅南道 珍島郡
住 所 西大門区 忠正路 三街 山一番地
連絡處 西大門区 北阿峴洞 山番地
檀紀 四二七一年 八月 十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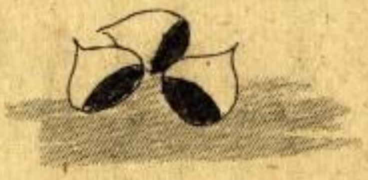
〈設 問〉

1. 絶對的인 熱誠과 인내력이 수반되는 확고한 精神의 수립이 이社會에 必要함을 인식했다
2. 希望은 있지만 마음대로 않되는것이 이 社會와 逆行하고 있으니
3. 中媒結婚
4.
5. 보다나은 實力양성 할 문속에 들기로 敎育界로 가겠읍니다

〈부 로 필〉

速記까지 一日平均 二百枚를 넘겨쓰는 그만한 굳은 意志로 하루도 빠짐없이 皆勤賞에 빛나는 努力……

앞으로는 敎育界로 進出할 뜻을 갖이셨다면 學校에서 硏磨한 그 努力을 活用하시길……



李在根

本籍 忠南 論山郡 夫赤面 德平里

住所 서울特別市鍾路区 体府洞 一〇〇番地

連絡處 右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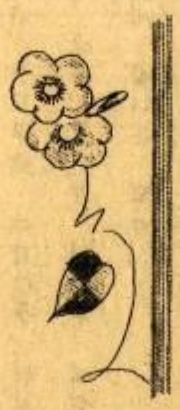
檀紀 四二七〇年 十月十四日生

<設 問>

1. 젊은 사람은 배워볼것 (?)
2. 속기를 배우는동안 많은 고난에 봉착해서 세상 만사가 여의치 못하다는것 즉 포부가 커졌지
3. 그저 좋소
4. 어중간한 마음가지고 덤빌것이 못된다
5. 큰집에 되면 좋고 않되면 논산 대학행

<푸 로 필>

잘마한키에 班에서도 어린축에 한두째를 다투며 德奇李氏의 存在를 과시하며 努力에 努力을 쌓아 아침부터 점심도 굶어가며 밤 여덟시반까지 계속에 계속이다 그래 한때는 몹시 형편없이 여위어졌었는데도 不拘하고 그래도 계속 또계속 지금도 계속이다



徐在德

本 籍 忠南天安郡成歡面鶴午里一九五番地
住 所 서울特別市鍾路区 都染洞一〇五의四
連絡處 道路一 及 上同
檀紀 四二七〇年 十月 二十五日生

〈設 問〉

1. 速記를배우고저 高等學校 때 부터 였지만 한때 철모르는 탓이였고 막상 닥쳐 잡고보니 뜻대로 되지않은 일임을 알았소 짧다고보면 짧고 길다고 보면 긴 一年間에 苦難을 살이한 親友들과 다시없는 友情이 두터워 첫音은 大麦数의 經驗者 曰 速記는 文學일수없다는 表現方式으로 異国同声으로 떠들어 댈만치 골치인

〈부로 말〉

韓國에 新版 가루소 라는 貴君은 그래도 노래를 副業이라나…… 主業은 뭐냐고 물으니 韓國에 섹스피어와 같은 作家가 所願이라나 이쯤되면 現代의 一線作家들이 아연실색케할듯 그러나 우리 學校의 자랑 또한 國際的인 자랑이라고보니 貴君을 一機짜리 德行機나 래운것같은데 絶對 와이로 먹고쓰는것은 아니다 諸兄들 파히 섭섭히 生覺치 마시기를

바 速記가 맺어준 産物이라 봅니다

2\. 남달리 精神的으로 못한 인간인 탓인지 또는 人生術策에 수반되는 그무었에 억압되였든탓인지 알수없으데 가날픈 体格으로 陸軍大將을 希望한 사람이오만 마음은 確固한 軍人이니 오늘이라해서 이마음 그抱負가 變할리가 있으리까마는 時節이 마음과 같이 않으니 믿기는 어렵소 于先 糊口之策으로 速記士라도 했드니 亦是 一夢으로 사라졌구려

3\. 困難한 質問입니다마는 不得己 答할 義務를 가젔기 까닭에 간간히 表하오니 長年期神士淑女 諸先生들께서는 눈을 감진 우리 青年期小人들에게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되겠습니까? 정말이예요
좀빌려주세요 삼간만 눈을! 그리고 삼간 실례 하세요 老兄!
비! 그러면 좋습니다 보시다싶이 재미없으시면 그만두시겠지요 生覺되로하세오뭐 老兄, 諸先生任들 望婚期에 老총각 「앤드」 숫총각 여러분, 二十世紀 最新文明이 續出하는 오늘 이社會속에, 坊々曲曲, 거리마다 公園마다 家庭마다 골목마다 彷徨하는 「헷손걸」을 보시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農村, 山村 壁村에도 그런 愚人들이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세요 서울女子를? 그럼 시골處女를

밀정 이것이 疑問이겠지요.
너무 廣大하다면요 "너를알고 나를알고"
그리고 "하나와둘"을 분명히 分別하는
女人들을 놓고 말하겠지요 틀림없지요.
再論하면 응뎀이가 굉직하고 가슴팍이
알맞이 퍼저나온 그中에서도 最新形「뉴-룩
산 스타일」이나 純國產으로 한팔로 딱
지붙은 숫處女나? 이것아닙니까?
不得已알고싶다면 亦是人間인 以上「뉴-
룩산」이어떻나. 이것이全部입니다.속이후련
하십니까? 男子를 처놓고 예쁜女子와 恋
愛를하고싶지않은사람은 없지요 그렇다고
女子가 많고렇다는것은 않입니다 女子는 녀
할지도 몰라요 아! 정말이예요 이야기가
놀랐읍니다

本論에 드러서서 둘째로는 精神的으로
어떤 族속을 擇하겠느냐? 인데 나는 내
시중을 完全히 들어주는 女性 이라야 되요
정말이예요 그런人間이 없다면 좋아요
네 혼자살겠세요 그러면 됫읍니까?
그럼이좀 끝이있읍니다 너무욕머어지마세
요 부탁합니다 老兄그리고 諸先生任들
께는 너무 실례가 컸읍니다

4. 대개는 아마 迷記가 무엇인지 모르는
人間들이 보통인것입니다 于先 하고자
하는 사람이 自己의 性格上 맞느냐?
않맞느냐? 부터 알아보구서 덤빌것이고
責任 덤볐으면 주저말고 꾸준히 하는수
밖엔 道理가 없읍니다 그저 머리는 메
주가 되고 머리같은 마부리가되고 손은

기계가 되도록 쓴는수 밖엔 그러면
되겠지요

5. 失業者「인푸렌숀」인 이社會에서 좀
더 알어야 살겠드군요
到 배워야 겠다는것입니다
實力이 빽보다 못한 오늘 이걸려
배워야 겠다는거지요
實力優先主義를 再編해야 겠읍니다

金 淳 喆

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区 樓下洞 七三番地

住 所 서울特別市城北区 下踰洞 八八의九号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一年 三月 十八日生

〈設 問〉

1. 첫째 발을 잘못드려 놓았다는것, 둘째 내生에 약간의 "무라스"가 될수있는 忍耐를 工夫했다는것

2. 至今이나 예나 그리고 未來나 앞우로 보부가 없다

3. 첫째 條件으로 용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둘째 條件으로 하나와 들을 가릴줄 아는 女性

4. 自身의 生活과 갈길을 잘 生覺하고 速記를 러할것, 速記는 精力과 時間을 要한다

5. 約一0日程度 절간(寺)에 드러가서 머리를 좀 쉬고싶다

〈무 로 필〉

沈默第一主義로 언제나 굽이고 잀아 學君에. 熱重하는 君! 生活을 좀더 活發하기爲해서 速記를 배운다고…… 새촘한 体態에 퀴빌블을 덮은 다부한 머리의 美觀 決心한바 所願이 이루어질듯…… 決意이 全部이며 萬一 女子라면 술먹는 男子를 理解하기에 勞力하겠다고! 韓國의 李舗仙 이가 될려나요 저윽이 文學에 趣味를 가지셨다니 그럴뭇도

全 海 成

本 籍 全北 錦山郡 濟原面 明谷里 三五二

住 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四洞 大街八一

連絡處 民議院 事務處內 速記課

檀紀 四二六九年 九月 十日生

〈設 問〉

1. 青春期에 있어서 忍耐性의 試驗期의 시험판이 였다고나 할까.
2. 眞實한 政治人이 되려했으나 只今은 眞實한 速記士가 되였으면……
3. 아직은 新鮮한 풋내기였다
4. 速記란 青春의 最高 忍耐 養成의 試金石임을 認識하고 出發하기를
5. 두고 두고 오랜 구상이 必要

(경솔은 금물)

〈뚜 보 밀〉

유독手足이 큰데다가 키도 적은편은 아니다 콧물이 나오는 술이 많아 자주 훌적〈 한다고…… 모르면 몰라그러되 코병이나 있나보오 더버머리에 항상 끼인먼지 速記場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모양 착실한듯하나 가끔가다가 흥분하는 잘도 많은것같으니 男兒다운 기백도 찾어볼수 있고…… 쉴사이 없이 책을보는 君 기억코 복되기를 다같이 바란다고 합니다

崔 權 興

本籍 忠南 大田市 牧洞
住所 서울特別市中区光熙洞二街十一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六二年三月二十一日生

〈設 問〉

1. 努力이란 참으로 貴하다는것
2. 그저 談々/
3. 人生을 맛보았는가?
4. 努力할 覺悟를
5. 밤길을 가련다

—

〈푸 로 필〉

生活技術을 習得하기 爲해 배운다는 建記는 오래前에 "마스트" 한뜻 큰 기쳐뒤이서 배여내는 한줄기 野談은 항상 「그옛날에 崔氏 라고하는……」하며 계속할때면 大擧生 壇上의 位置를 더욱 華麗히 하렴인듯.

자상하게 생긴 저온 体格의 老총사! 때로는 노파심에 못이겨 教室을 더드므니……

하루빨리 "스윗홈"을 이루고 싶은 老총각의 심정을 동정하며……

學生会總務를 맡아 수고한점 다같이 感謝드립니다

朴奉植

本籍 平北道宣川郡山面農牛里
住所 慶南昌原郡東面石山里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八二年二月五日生

<設 問>

1. 하면 할수록 어려워만 갑니다
2. 사라져만 가고요
3. 오망스러운것만 아니면 아무께나
4. 더펴놓고 써오 그리고 써
5. 우선 땅이라도 파야 겠읍니다.

<무 로 필>

一人一技時代要請에 呼應하기 爲해 速記를 배우신다고요

둥근 얼굴에 둥근눈 잘라한 키에 잘라한 머리칼 언제나 다팔거리는 그모습어 비록 三十代 老총각일 망정 貴여울 程度……

始終如日 學生會副会長으로 親동생같이 会員에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行動 하시는 의젓한 兄任

警備隊長 이라기 보다는 貴한집 맏 사위감 이라고

結婚問題는 말하기 조차 실타하니 총각말은 언제나 벗을는지 但 오망스러운것外에는 다 괜찬은양

河 大 煥

本 籍 서울特別市

住 所 서울特別市城東区金湖洞山十番地 十七統十三班

連絡處 民議員事務處內速記課

檀紀四二六九年十一月四日生

〈設 問〉

1. 同一한 目的아래 同苦속에서 느끼는 참 다운 友情이 무엇인가를….

2. 지금을 말하기에는 그때의 포부가 너무 나 컸읍니다

3. 모든點에서 女性다운 女性으로서 不足 이 없다면 좋습니다

4. 우선 速記學을 배우라고 勸하고 싶지는 않으 며 既往에 드러 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先生任 의 모든 가르침을 꼬지식하게 받아드린 속기는 成功할줄 압니다

5. 더많이 工夫하여야 겠읍니다

〈꾸 로 필〉

은근파 끈기를 生活方針으로 한다면 어쨌지 몰라도 何如든 꾸준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河川 나이아라氏라는 別名을 얻은후부터는 이쁘고 常時화색이 돌고있는 나이아가라 氏가 더욱 예뻐만졌다 어떻게 보면 말이 없이 或오해를 시기를 쉬울때도 있지만 実은 速記를 하는 순간 마는 그렇다나-? 그래서 그런지 똑은한 맛이 풍기다고나 할까 : 늠々한 태도 기어코 成就씨 月桂冠을 쓰게끔 되었다고들 뒤々 바라지며 꿈꾸는 高試나 또 소원성취 하시도록 한가지 섭섭한것은 가끔들리는 꼼씨집에만 가면 모다 똑 차지 할라는것이 너무 남은 사람을 생각도 않는다고 쑥닥 쑥닥…

읽고보면 저우… 그것밖에 더한것이 없다는데//

朴明鎬

本籍 서울特別市中区光熙洞二街一四三

住所 서울特別市城東区新堂洞三三三-一九

連絡處 東和百貨店 結婚相談所

檀紀 四二九一年三月五日生

＜設 問＞

1. 世上이 좋다는것
2. 글세올시다
3. 아직은 꿰로 生覺해본적이 없소이다
4. 努力과 忍耐를 부탁하겠소이다
5. 黃昏列車를 타겠소이다

＜푸로·필＞

부자집 맏딸 모양으로 흐르는 점잔은
누구를 홀리련인지
反對로 입이 벌려 다발로 꿀려나는 유
모어는 피곤해진 속기기계에 기름이 되
여주니 기탄없이 快男이라 하겠소
遊興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司會者가 되
여 不得已 웃어야만 하니 亦是快男이요
悲觀는 밀못한 事情이라고하니 以上
묫기도 싫거니와
未來의 子息은 틀림없이 速記士를!
그러면 孫子는 또 어떻게…
亦是一人一技主義인갑쇼 궁금

張 京 錫

本籍 서울特別市鍾路区

住所 서울特別市麻浦区倉前洞 四六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一年 四月 二八日生

〈設 問〉

1. 뭐 이루 말할수 없읍니다.... 努力 끝에 成功이라고 하지만 速記만은 좀 달리 볼까 합니다

2. 高等學校時節의 포부는 虛空에 뜬 종이 조각과 같겠지만은 만일에 있다고 하면 文學을 專攻할 작정이 였는데... 지금의 抱負는 高等學校의 希望으로 다시 도라갈까 합니다

3. 最新型 "뉴·就企" 스타일로 定評이 어떨른지

4. 誠心과 努力을 기우려 각 速記學에 落後가 없도록

5. 國文學을 專攻할까 합니다

〈푸 로 필〉

三尺童子라도 알만치 큼직한 몸맵씨는 젠트르멘, 같다고 누구나 우러러본다고, 況常 國會速記士가 되겠다고 자랑하더니만 現在는 速記士는커녕 声樂家가 되겠다고 날뛴다나 진작 速記를 집어치고 声樂工夫를 했드라면 지금쯤은.... ....그의 취미는 노래와 독서라고

南 基 豊

本 籍 忠南 牙山郡 道高面 柿田里

住 所 서울特別市 城北区 敦岩洞 一五八의 四号

連絡處 右同 及 明洞

檀紀四二七二年 一月 十三日生

〈設 問〉

1. 첫투리 건드렸다가 큰코 다쳤읍니다
2. 確固한 動
3. 입맛이 울면 집안이 亡한다
4. 關心이 없소이다
5. 돈. 돈. 돈. 돈. 돈. 을 버려야지

그리고 져 서 ㄹ 호 ㅎ ㅗ ㅗ ㄴ 도

급하고요

〈푸 로 필〉

"建紀士가 될까하고" 있는그대로 버뽑는

聖人의 一人!

"스크린"에 나타난 「쿠퍼代」가 원이라

구요 글쎄요

헌피부에 시원스레 큰 体軀는 그렇듯하되

性格은 몰라 궁금

ㅣ 原作인 構想가 印象에 깊은 冊이라

子

藝術의都市 파리에서 展開되는 ___와 ___

의 불붙는 사랑에 도취된 모양이군요

그들 以上의 "로벤스"에 유비하겠오

李如蔘

本籍 平南鎭南浦市 碑石里

住所 서울特別市永登浦区上道洞一三八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二年 三月 三0日生

〈設 問〉

1. 지긋. 지긋.....
2 마찬가지오
3. 아직 경험이 없읍니까
4. 運能은 아천(?) 같은것이니 萬一時
경우를 生覺할것
5. 大學을 가고 싶은데 어찌 될지 모
르겠소

〈무 보 필〉

보기에는 確實히 男子라고 할수있으나
運能錄을 朗讀하는 音声은 흡사히 男性
들을 녹이는 가냘픈 女性임에는 틀림이
없다 朗讀할때마다 ××를 보고싶은 충
녀이 자꾸 솟아오른다 언젠가 한번 섬
사를 해야만이 속이쉬원 할것같다
마음은 어떻나 구요?
말씀마오 오지음 現代女性치고 명첨도
내밀지못할지경!!

尹應遠

本籍 京畿道楊州郡
住所 서울特別市龍山区厚岩洞 四○○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 四二六七年九月八日生

〈設 問〉

1. 고빙이나 되고나야 말할 勇氣가 나지
2. 當身(讀者)와 똑같읍니다
3. (i) 티입 〃 절구통形
   (ii) 마음씨 〃 씩씩하고 상냥하고 알뜰하고 짓굳고 심술많고한……
   (iii) 學力 〃 一字無識
4.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소
5. 시기상조다 아들인지 딸인지 나봐야 알지

〈푸 로 필〉

號令이나 할것처럼 버지고 앉은 姿態는 面上에 眠曉으로 더욱 아울리고 溫順하게 굽이고 연필을 잡으면 선비타입의 財務長官!

萬一 文子라면 賢母良妻가 될려 라고 하며 씩씩하고 알뜰하고 상상냥하고 짓굳고 심술많은 女人을 안해로 맞겠다구요 좋은 생각이 십니다

뜻대로 速記學士가 될듯하오 學生会 財務를 맡아 稅務署員이 되며 수고한 점 感謝를 드립니다

金 允 東

本籍 서울特別市鍾路区 樂園洞 二八三의八
住所 〃 〃 苑西洞 一五一의三
連絡處 右 同
檀紀 四二六八年 九月 一日生

1. 精神統一을 要하는 學問이라는 것
2. 冒험 없읍니다
3. 文性다운 文性
4. 아무 할말이 없읍니다
5. 그저 남의길을 걸으렵니다

〈무 로 밀〉

언제고 한번은 사귀보고 싶은듯 짓는 微笑 옆으로보면 如何히 나라면 表情은 思索의 "봄" 獨斷을 확보하는 性質의 主人公 남달리 넓은面積의 이마 그리고 눈 이것이 代의 모습이라면 理解가 될는지 學生会 会長이라는 重責을 맡아 卒業當場에 까지 純請히 이끌어 왔음은 단지 本人의 誠實性파 理解하기 어려운 性格의 靑年이 였기때문 推理를 찾는 事物의 是非曲直을 가리는 思索人 이라면 좋은 修鍊期의 一錯이라 하겠지만 代의 아깝 없는 學苦에 對하서는 会員全員이 다 같이 感謝의 뜻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丁奎哲

本籍 京畿道龍仁郡南四面

住所 나이야가라

連絡處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三街一四 (不日內로 移舍)

檀紀四二七二年十月十日

〈設 問〉

1 病者와 같은 기분이외다

2. 모루겠세다

3. 모르겠세다

4 ? ? ?

5 ? ? ?

〈푸로필〉

더벅머리에 기름한 얼굴 언제나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가끔 그 다무린 입을 열때면 天才를 無色게할 程度의 言辯 마걸리 한잔이면 O.K. 東大門이 五百圓자리 Y구평만 하고 鐘路가 실오러기 같다나? 酒党을 조직한 종재는 문제없고 술주정경기대회에 출전하면 일등은 지신만 하고? 그러나 學業에 있어서는 그누구보다도 열중하고 착실하다 앞으로 努力에 努力을 加하여 그 素質을 살려 부디 앞날에 成功이 있기를—

朴鍾亮

本籍 京畿道平澤郡平澤邑蛤井里四九二의三
住所 右同
連絡處 右同

檀紀四二七一年七月二日生

〈設問〉

1. 젊은 기분에는 하지못하겠는걸
2. 장부의 抱負가 그렇게 쉽게 變할리 가 있소? 여보!
3. 無條件 복종
4. 地下室에서 썩지 않도록 冷凍裝置 準備할사
5. 于先 장가를 들어야겠소 돈 돈 돈 도 좋지만

〈푸 로 필〉

휘버려진 平澤平野에서 자란 까닭인지
속에는 구김살이 없는것 같애요
밉지않은 얼굴이 시원스레큰 二ㅇ 眼
팍지에 매달려 자상하게 웃는모습은
走獸는 싶고 꽃다운 *Miss Korea* 를
찾으렴 이라고요
잘막히 연필을 잡아쥐고 긴 体態를 있
는대로 굽이고 앉아 쓰면서도 여일 신
통치 않은 文句로 섞어내 뽐으니 速記
와 싸우기도 적지않이 힘이 께는 모양…
秘密片紙를 쓰기爲해 배울라구요
그程度의 實力은 되지않습니까?
왜 自善事業이나 ………

元光渕

本籍 京畿道金浦郡陽東面新堂里(堂谷)
住所 右同
連絡處 右同
檀紀四二七二年三月八日生

<設問>

1. 두더지 生活 ?
2. 正反對 ?
3. 뚱뚱보 ?
4. 없다 ?
5. 論山行列車 ?

<푸로필>

항상 침착하고 온순하며 밉지않은 얼굴에 때로 저기압이 흐르면 침묵 第一主義...... 적지않은 키에 언제들어도 담담한 그 목소리
인인개개의 욕망은 다 다르다 하겠으나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청운에 대지를 품은 인상은 타인으로 하여금 승배의 마음을 억제하기 어렵다
단 앞날의 성공있기를......

金 鍾 壽

本 籍 서울特別市

住 所 서울特別市鍾路区鍾路五街二六五의三号

連絡處 서울特別市西大門区弗光洞 再建住宅 第一五九号

民議院事務處內 速記課

檀紀 四二六九年 十月 七日生

〈設 問〉

1 참된 藝術 라는것을 맛보았음

2 그때 亦是 速記를 爲해서 工夫했으며 現在도 그 程度 거짓말 같지만……

3 夫婦有別을 "某旺"로 하고 그저 그런 저런

4 世上이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어! 環境에 支配받는 人間이 되지말고 環境을 支配하는 人間이 되기를

5 굳굳히 살것이며 무엇하나 남기고 사라지겠다

右와 如히 相違없음을 證明 하나이다

〈무 보 필〉

端正한 옷차림에 성근한 金은 만사에 실례가 없을듯…… 大학을 전공하면서도 "카루소"는 빰맞고 돌아갈만큼 세련된 목소리에다가 이쁜 얼굴로 잘막한 키에 곤색 "신구루"는 어울리기만 할뿐이겠소… "다정 다감" 한 김은 비비고 눕느는데도 컬등한 재능을 가졌다고 잘잘거리는 만인데……

고사리같은손은 악수할때마다 뜨거운 정이 흐른다고…

김이여 훌륭한 작품을 구상하든것이 끝네 성취 있기를……

尹炳直

本籍 서울特別市鍾路区桂洞

住所 서울特別市城東区上往十里七五의七

連絡處 民議院 事務處內速記課

檀紀 四二八九年 九月 二十一日生

〈設問〉

1. 生은 多難하다는것을 再參느꼈읍니다
2. 글세 올시다 다음機会 선술집에서 맛납시다
3. 無條件 명랑한 母性
   왜나? 나는 그와 正反對임으로
4. 百里길에 九九里를 가지랄기를 바랄뿐
5. 困難한 質問이군

〈무로필〉

상이경관으로 가칭한 尹은 每日같이 공자 빼스를 탄다니 빠쓰업자도 좀 생각하시기를...

게다가 참정바바리로 횝찬 발거름은 마치 地下室이 세멘트●기때문에 전던 모양이라고.....

등치는 큰데다가 눈이 작은편이라 까풀 깜박깜박하는 때가 있다고 하나 웅큼이 速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니 적은 눈에 큰몸도 쓸모가 있나보오

崔 炳 哲

本 籍 京畿道楊州郡議政府邑虎院里

住 所 서울特別市城東區敦岩洞八三의五三六

連絡處 右 同

· 檀紀四二七○年二月十日生

〈設 問〉

1. 쉬지 않는다는것 하여간 一年동안에
고생한것을 누가 알어줄는지?
苦生끝에 樂이 있다는데!

2. 中高校時節에는 大統領이 되겠다 하였는
데 現在는 밥버리할 구녕조차 없으니 한
심한 노릇이구만!

3. 좀더 順眞한 女性

4. 速記를 배울때면 한번 다시 生覺할것

6. 一年동안 苦生을 하고나니 그저 마연할
뿐인걸

〈부 로 필〉

암전하기로 有名한 崔君은 마음도 다소곳
하여 사교성에는 더말할나위 없다
어제날자 東亞日報 사교란에도 기가막힌
칭찬이 있었다하니 반가운 마음....?
언제가 같이 나눈술에 통행금지를 위
반한 판독이 붙은것만은 좋은데 구후에
어쩌고 저쩌고 확실히 男性中에 男性
으로서 믿을수 있는 친구라는것을 뻗는
바이다 아하

앞으로 君의 建康과 幸運이 깃들기를...

朴 참 봉.

車智寧

本籍 京畿道坡州郡炭縣面权峴里
住所 右同
連絡處 서울特別市鍾路区勸農洞一九○番地
檀紀 四二六九年 三月十七日生

〈設問〉

1. 속기란 인간의 精力을 최대한 소모함
2. 百八十度 回轉하였다
3. 無形之物 아무것이나
4. 努力하시요
5. 論山旅行이나 떠나볼까

〈부로필〉

첫 보기에는 참 어리디 어린 少女같이 보인다
그러나 뱃속을 들여다 보니 늙은거지가 열댓개나 들어 앉어 있다고 술한잔이 들어가면 밤낮 투덜 투덜…
短的으로 얘기하면 수집은 시골 處女 같고 어떻게 보면 서울 鍾路稅務署 職員같다고 學友들 間의 人氣가……
네! 그렇습니다.

洪 鍾 才

本籍 全南海南郡花源面
住所 서울特別市城東区上往十里洞七三九의十
連絡處 美國大使館

檀紀 四二七一年 五月 三〇日生

〈設 問〉

1. 세상에 學文지고는 회피망측하드만 技術이나? 學文이냐?
2. 말씀마시오 기가막혀서! 올라리없는 광야에 울고섰는 송아지 心思라고나 해볼까?
3. 글쎄 해골이 복잡해서
4. 速記를 배우려면 두뇌와 노력과 인내와 진지와 討論끝에 擇하시도록 特히부탁.
5. 밤낮 兵力기피硏究에……

〈뿌 로 필〉

언제나 말이없이 묵묵한 표정…
하와이 青年으로서 青雲의 뜻을 품고
굳센 活動을 한다고…
어데든지 多情한 맛이 흐르고 은근한
맛이있는 洪은 항상 보람이 있는 삶
을 찾는것 같다고들 하면서도 가느다
란 목소리가 더욱 정이 든다고…
부디 성공하시기를……

白允基

本籍 京畿道坡州郡月籠面德隱里一〇五番地
住所 右同
連絡處 서울特別市麻浦区阿峴洞山十番地
（但） 論山大學入學可能
檀紀四二七〇年六月二〇日生

〈設問〉

1. 人生살이 二〇年의 마음만 헛되었나봐
2. 호박같이 둥근세상 될때로 살자
3. 나를 따를자 그누구뇨?
(但) 速記兼能한 女性
4. 速記를 배움을 目的으로 한다
∴(∵忍耐를 기르기 爲하여)
5. 論山으로 쫓길까 하노니 더묻지 마시요

〈푸로필〉

언제나 보아도 앙증달승한 옷차림은 曲마단에 서커스 광대처럼 여러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것.... 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보면 八·一五 기념품같애서 유감 천만.... 하더튼(?) 떠러지진 떠러진 모양인데 약간....
아니 말을 삼가하라구요?
네비 뭐 식혀만 한데요 뭐 미친이야 다 있는것인데 뭘그래
앞으로 福많이 받기를————

趙允浩

本籍 서울特別市中区武洞二七
住所 서울特別市永登浦区永登浦洞三七의四九
連絡處 民議院事務處內速記課
檀紀四二七〇年七月二十日生

〈設 問〉

1 뜨거운 국에 맛을 몰랐어
2.
3. 小型 ×× 으로서 명랑성 쾌활성의
소유자
4. 나를 따라온 잔말은 떼놓고
5

〈푸로필〉

이양반이 바로 머리를 제머로 차지도
못하고 세수도 하는둥 마는둥 二十四時
間 그저 速… 速記
汽車로 通學을 하면서도 아마 汽車간에
서도 速記… 그中에서도 速記
이래서 한때 速記病에 걸려서 누을 狀態
였었다고 그런데 至極하신 어머님의 뒷
받침은 그여히 끝인의 領까지 問題가
없었는가봐

李 錫 來

本 籍 忠南保寧郡靑蘿面黃龍里
住 所 右 同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七一年十二月十八日生

〈設 問〉

1. 忍耐力培養에 좋으나 家族로서는 못
할것같군?
2. 大海에서 河川으로 앞으로는?
3. 賢母良妻에 明朗性과 快活性
4. 初志를 貫徹하라!
5.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무 로 필〉

亘時 서글 서글한 내가 풍기는 男性的인
体貌은 알맞게 버서진 이마가 더욱 아울
리고 女子라면 賢母良妻가 되겠다는 君!
戀愛다운 戀愛를 한다면 틀림없이 賢母
良妻 緣分을 매줄터....
빈틈없는 마음 웃어주는 印象은 西海의
넓은바다를 끼고 자란 까닭인지
지나치게 벗어진 이마에는 고집 & 잔소
리가 多分히 有....
그것이 흠....

申 岳 革

本籍 忠南天安郡聖居面松南里二七四番地
住所 右 同
連絡處 民議院事務處內速記課
檀紀四二六九年十二月二十九日生

〈設 問〉

1. 어렵고 고된것
2. 그저 그렇하고 말하기도 싫어…
3. 뭐 알수없군 내마음을 사로 잡을
女性이면은 그러나한상 시골색씨가
그럴거든 "아무래게 일걸" 보다는 말
이예요
뚱뚱한 것인지! 혹시몰라.
4. 忍耐
5. 論山에서 잡아준다면 結婚이急先務라

〈부 로 필〉

석달 열흘 거죽으로 키워논 "바큐샤" 体
格을 가진 君은 政治家가 되겠다고?.
뭐 速記士가 되겠다고?, 어느것을 多岐
亡羊格이군요, 그래서 되지라는 別名을
갖게되었군요
數學에 天才이시라구요
sin Cos 은 問題가 잘되!
未來의 子息은 sin 線을타고 흐르는
音樂家를 만들어 보겠다구…
學生人氣 投票에 當々 當選에 榮光을
차지했으니 速記成功은 決心할바 조차
없고 그리고 보면 동키호테라고는…?

金 慧 星

本 籍 平北定州郡定州面朝日洞

住 所 서울特別市龍山区厚岩洞三十의七号

連絡處 C.C.F. 韓國事務所 Te ③ 四七三九

檀紀四二六九 年 十月 十四日生

〈設 問〉

1 한숨뿐이지요

2. 人生이 너무도 짧아서! 원(?)

3. 곰보에 사팔떼기 여러분 어떻소?

4 lim 1→365 努力

5. 万分之一이나마 速記와 관련있는 生活觀이 세워지기를 아ー멘

〈무 로 말〉

女人과같이 가냘픈 몸으로 가든길에 잠간 들려 速波學報 第一号를 놓기에 無限이 애를쓰셨으니 다같이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內性的인것 같으면서도 오목 조목한 얼굴에 微笑까지 지우고 나비야 나비야를 連発하며 곰보아니면 애꾸눈의 안해를 맞겠다고 유모어를 치는 새종体格의 君은 六十이 青春이라니 한 二百年은 살 모양!

閔 丙 高 (請講生)

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区 苑西洞

住 所 서울特別市鍾路区 積善洞九八番地

連絡處 右 同

檀紀四二八九年十一月五日生

〈設 問〉

1. 「忍耐」와 「努力」의 語彙에 再認識

2. 이땅위에 "무러스" 하는 일이라면 좀 더 具体的으로 言論人

3. 私的으로 問議할 事

4. 始作을 愼重히

5. 速記와 完成 (?)

〈모 로 필〉

途中에 入校한 請講生中에서도 唯独 홀로 남어 끝끝내 쫓아온 그 熱파 誠

거기에 努力……

그저청 將來 熱心히 더 前進하여 그에 成功하길

母校의 沿革

年 月 日	事 項
四二八四·十二·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釜山市 寶水洞三街五十七番地(國會事務處)에 設立함 設立者 故 朴鍾萬事務總長이 初代校長으로 就任함
四二八五·十二·三○	本校第二回卒業式을 擧行함 卒業生 三十七名
四二八六·十·一	國會還都에 따라 本校를 서울特別市鍾路区世宗路一番地(中央廳)으로 移轉開校함
四二八七·三·二十五	本校第二回卒業式을 擧行함 卒業生 二十一名
四二八七·五·三○	國會事務處移轉에 따라 本校를 서울特別市中区太平路一街六十五番地(國會事務處)에 移轉開校함
四二八七·六·十六	故 朴鍾萬校長辭任함
四二八七·六·十七	金用雨事務總長 第二代校長에 就任함
四二八八·一·二十五	金用雨校長 辭任함
四二八八·一·二十六	崔亞宇事務總長第三代校長에就任함

四二八八・三・二十一	本校第三回卒業式을 擧行함 卒業生 二十三名
四二八九 三・二○	本校第四回卒業式을 擧行함 卒業生 三○名
四二九○ 三 十二	本校第五回卒業式을 擧行함 卒業生 三十一名

敎職員名簿

職名	姓名	担當科目	備考
校長	崔逵宇	訓育	事務總長
副校長	鄭泓燮	〃	事務處次長
校監	徐商俊	國語	議事局長
庶務主任	金晨熙	〃	速記課〃長
敎務主任	徐壬壽		
學生主任	高在珌	法律學	法制調査局長
訓育主任	申鉉經		
敎師	張惠根	速記學	
〃	鄭源道	〃	
〃	金鎭基	〃	
講師	金昇鎭	經濟學	
〃	徐一敎	法律學	
庶務	韓鍾奭		

卒業生名簿

(同窓會提供)

第一回卒業生(三十名)

姓名	出身道
鄭澍	黃海
宋良浩	慶南
金泉弘	平北
林壽洪	全北
張高昌	京畿
黃圭鎭	慶北
洪斗杓	〃
金永南	平南
成二慶	慶南
鄭在景	〃
金基俊	平北
姜舜植	咸南
金基秀	慶南
韓美玉	京畿
禹英愛	〃
李貞淑	忠南
朴魯榮	忠北
金熙玉	平北
鄭順玉	平南
金信子	咸北
李英愛	全南
崔吉龜	平南
李振毅	慶北
韓相大	慶北
權在奎	〃
崔英燮	京畿
金鍾夏	慶南
金炯益	〃
李鴻元	江原
金應珪	平北
朴守烈	慶南
許寬	咸南
金京善	黃海
李相憲	서울
金敬嬉	慶北

姓名	出身道
車永憲	忠南
黃貞媛	京畿
第二回卒業生（二一名）	
金春盛	平南
李甲思	서울
徐萬福	黃海
金相振	忠北
趙寬淳	黃海
朴日永	全南
金哲淳	慶南
劉瑢喆	全南
姜成福	京畿
金允洙	全南
尹壽鉉	忠南
姜萬根	平北
尹奎鎬	京畿
朴殷健	咸南
朴貴順	서울
申雨健	慶北
鄭秉淑	京畿
文仲敬	慶南
尹興淳	忠南
金貴皇	全北
孫得珠	全南
第三回卒業生（二三名）	
鄭寅甲	
楊明鎭	
高大鎭	
楊順鎭	
吳吉景	
林偉相	
李正男	
李載仁	
申正淳	
金秉成	
白廷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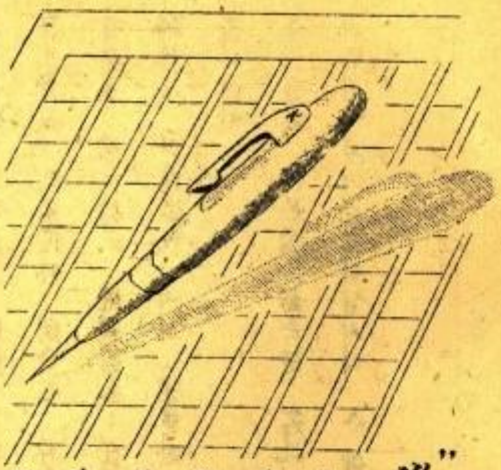
金京子	
金祥培	
金祐義	
李秀讚	
金百伸	
徐東篆	
金仁寧	
吳 憲	
崔秀玉	
洪宗基	
李逕紅	
孫俊禧	

第四回卒業生 (三〇名)

尹在彬	京畿
金映洙	慶北
梁海植	京畿
崔明淑	서울
孫金順	黃海
金宗鉉	江原
崔贊重	咸南
李鍾均	京畿
金明洙	서울
金明純	平北
朴晟淳	忠南
鄭禮會	黃海
裵炳雨	全北
梁基興	全南
朴勝世	京畿
李琉燠	서울
姜允珍	全北
黃圭瑢	忠南
韓弘男	全南
徐平吉	全南
金寅善	平北
金勳基	平南
裵寬洙	서울
孫弘基	全北
兪正根	江原
李東一	黃海
李奉烈	京畿
林森相	忠南
鄭悲慶	京畿

姓名	出身道
洪龍杓	서울
第五回卒業生（三十一名）	
姜萬洙	忠南
崔衡重	江原
朴相國	서울
金一謙	忠南
金永浩	서울
金明壽	〃
崔竜夏	〃
金容煥	京畿
崔錫棋	江原
金泰亘	서울
金俊永	〃
金大煌	咸南
朴保和	서울
白石基	忠南
徐允錫	京畿
徐東運	慶北
徐廷仁	서울
宋鍾學	京畿
申根植	全南
申丙均	서울
丁明淑	京畿
朴文基	〃
陸鍾晟	慶北
李天永	京畿
李康恒	서울
洪銀愛	平北
洪貞憙	江原
黃善明	京畿
李桂泰	서울
宋英培	〃
陸鍾来	忠北

後記



두고 두고 빛을 뿜을 遼波의 十二 뭉는 戊戌의 붓 時節에 発刊된다

年間 螢雪의 功을 쌓고 卒業을 하메 못난 열두째 아들을 낳기 무던이도 힘이 게는군요. 陣痛을 하기前부터 衰弱한 産母의 힘을 거들어 주기는 커녕 나오는 애기를 死産케 할만치 괴로움을 받은 며누리가 불쌍합니다 産婆치고는 똑똑치 못할진데 낳는 아들은 健康해야할일임에 낳고보니 병신이 올시다 糊口之策을 爲해하는 일인 망정 산목구멍에 거미줄 열켜도 産婆役은 앓하겠읍니다 特別히 高在聰先生任과 金震熙·金鎭基先生任에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그리고 投稿하신 會員(며누님)들에게 또한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在總▽

우리들이 있은 位置는 地下室 白色壁骨房어외다 高度의 몇개 電燈불 밑에서 이 적은 冊子를 떠기爲해 멀리는 몇십개의 손가락이 왔다 갔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읍니다

먼저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學友들의 精誠어린 많은 投稿와
援助 指導 艱難을 애끼지 않이하신 点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배속에서는 피아
노소리가 나고 時間은 자꾸 다라났읍니다
무엇보다도 이큰 學報板이 나오기까지
피눈물나는 努力과 時間을 割愛하여주신
學生會長 允東氏外 副會長 朴奉植氏 知
育部長 徐在德氏 總務部長 崔振興氏 財
務部長 尹應遠氏 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면서
우리들이 늙은後 젊은날 苦乱의 追憶을
머듬이 보기로 하십시다 △ 鍾壽 ▽

編輯委員

徐在德 崔炳哲
金鍾壽 崔叔兴
朴明鎬 尹惠遠
南基豊 朴奉植
金允東

프린트專門
美耕社
市庁前・太平路1街
TEL ②8285